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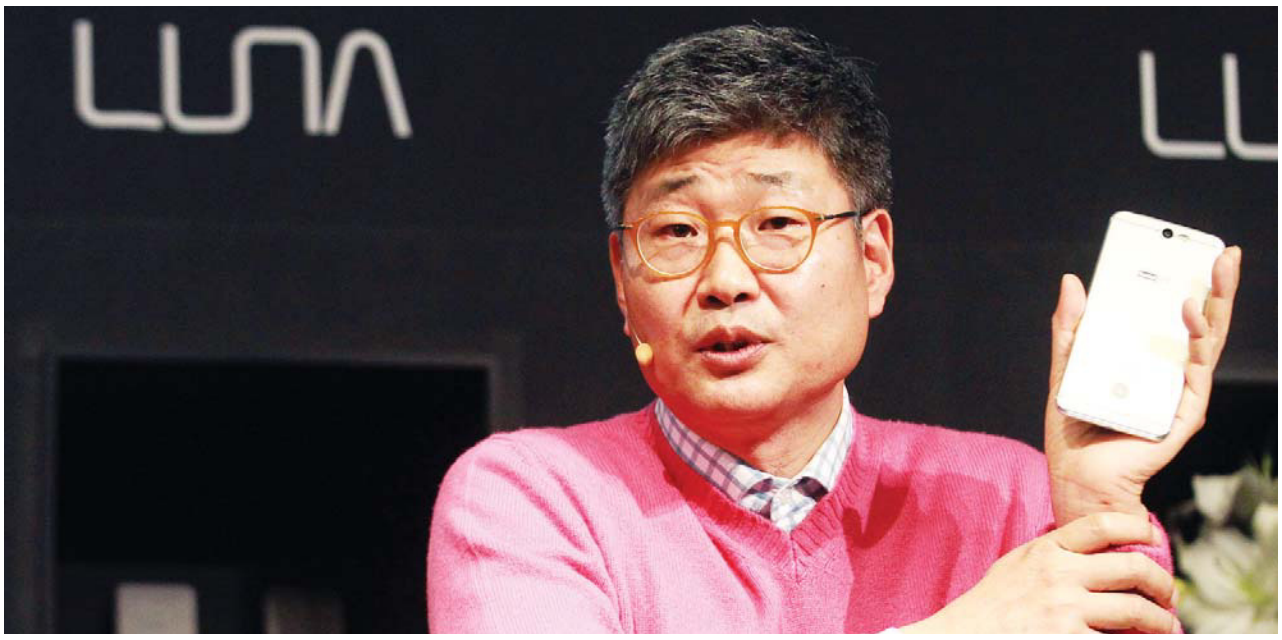
재조명 받는 거인 '정주영'

metro®

메트로 2015년 10월 13일 화요일 제3318호 www.metroseoul.co.kr

market index <12일>

코스피	2021.63	(+2.10)
코스닥	672.96	(−2.01)
금리(국고채 3년)	1.65	(+0.03)
환율(원·달러)	1144.00	(−17.50)



이홍선 TG앤컴퍼니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중구 신세계 조선호텔에서 '루나(LUNA)' 출시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韓·臺 합작 저가폰 '루나' 돌풍

<SKT·TG앤컴퍼니> <폭스콘>

세련된 디자인·프리미엄급 성능
출고가 44만9000원 가격 거품 쏙
하루평균 2000대 판매 '돌풍'

국내 인기 힘입어 해외진출 시동
美·日 통신사 협의… 6개월내 진출

SK텔레콤과 TG앤컴퍼니, 폭스콘이 합작해 만든 중저가폰 '루나'의 돌풍으로 국내 1, 2위 휴대폰 제조업체 삼성·LG전자가 긴장하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루나는 TG앤컴퍼니가 개발과 디자인을 맡고, 대만 제조사 폭스콘이 만들어, SK텔레콤에서 단독 판매하고 있다. 루나는 세련된 메탈 디자인에 프리미엄급 성능을 갖추고도 가격 거품은 쏙 뺀 스마트폰으로 호평받고 있다.

루나는 국내 출시 안드로이드폰 중 처음으로 메탈 유니바디를 적용했다. 아이폰6플러스와 같은 크기인 5.5인치에 풀HD(초고화질) 디스플레이를 갖췄다. 국내 이용자들에게 익숙한 구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에 아이폰 디자인을 입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고성능을 갖추고도 출고가는 중저가 스마트폰 수준인 44만9900원이다. 게다가 SK텔레콤이 출시 첫날부터 31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실구매가는 9만3000원대까지 떨어졌다. 더불어 인기 아이돌 가수 설현이 모델로 나선 TV 광고 역시 화제를 모으며 판매 열풍에 힘을 보탰다.

현재 루나의 하루 평균 판매량은 2000여대. 한달에 6만여대가 지속 판매되고 있다. 메탈 소재 중저가폰 열풍에 LG전자 또한 G클래스를 출시하는 등 휴대폰 제조업체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기세를 몰아간다면 TG앤컴퍼니가 판매 목표량으로 내건 '첫 6개월, 60만대' 달성도 시간문제다.

이홍선 TG앤컴퍼니 대표이사는 이날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루나 출시 기자간담회에서 "루나의 성공비결은 세련된 디자인과 '가성비'(가격 대 성능비)라고 생각한다"면서 "출시 6개월 이내 60만대를 판매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TG앤컴퍼니는 개발 단계에서 소비자의 관심 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하는데 힘썼다. 기획 전 3년간 블로그, 트위터, 포털, 지식인 등 1500만개의 빅데이터를 분석해 얻은 결론은 '스마트폰=디자인'이다. 세련된 디자인과 심플한 인터페이스를 추구하면서도 합리적인 가격을 내세우자는 목표로 개발한 결과 루나가 탄생한 것이다.

국내 인기에 힘입어 TG앤컴퍼니는 해외 진출에도 나섰다. 이 대표는 "6개월 내에 다른 나라에서도 루나를 볼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일본과 미국의 통신사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루나를 이용하는 구매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부분은 '가성비'가 꼽힌다. 실제로 루나폰 사용자 커뮤니티에서 179명을 조사한 결과 55%(99명)가 가격 대비 높은 성능 때문에 루나를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렴한 가격과 만족스러운 디자인이 각각 20%(37명)와 18%(30명)로 뒤를 이었다.

지난 달부터 루나를 사용 중인 회사원 임경민(30)씨는 "가격은 보급형인데 성능은 프리미엄급이다. 아이폰은 너무 비싸고 갤럭시 시리즈는 너무 흔한 상황에서 루나를 선택하게 됐다"고 밝혔다.

실제로 국내 단말기 시장은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중저가·실속 중심으로 빠르게 개편되고 있다. 이통사가 소비자의 입맛에 맞추려면 프리미엄 제품보다는 더더욱 저렴한 전용 라인업을 갖춰야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통사 관계자는 "연령대에 따라 주로 쓰는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필요한 기능에 특화된 중저가폰을 찾는 고객들이 많다"며 "라인업이나 지원금 등 시장 환경이 중저가폰에 유리한 쪽으로 급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연승 KT경제경영연구소 연구원은 "단말기 성능이 상향 평준화되고 단통법 이후 저가폰에 대한 지원금도 개선되는 추세"라며 "이에 따라 중저가폰 강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루나'는 메탈 소재를 사용한 디자인에 7.38mm의 얇은 두께를 갖췄다. 5.5인치 풀HD 해상도 디스플레이를 장착했다. 지난해 갤럭시S5 해외모델과 G3에 장착된 바 있는 퀄컴 스냅드래곤801을 프로세서(AP)와 3GB 메모리, 16GB 내장 메모리를 탑재했다. 카메라 성능도 뛰어나다. 전면 800만 화소와 후면 1300만 화소 카메라를 지원한다.

40만원대 '루나'가 돌풍을 일으키는 반면 삼성·LG전자의 중저가 모델의 반응은 지지부진하다. 루나와 비슷한 하드웨어 스펙을 갖춘 삼성전자 '갤럭시A8'은 인기를 끌지 못하고 있다. 64만9000원으로 최근 출시되는 중급형 모델과 비교해 가격이 꽤 비싸기 때문이다.

LG전자가 내놓은 '넥서스5X'도 가격은 루나보다 비싼 반면 하드웨어 스펙은 루나와 같은 수준이다. 화면 크기, 모바일 AP, 메모리, 배터리, 카메라 등이 거의 비슷하다. /정문경 기자 hm0108@metroseoul.co.kr

메르스 재감염 발생

마지막 환자 양성판정… 종식 미뤄 질 듯

최종 음성 판정을 받고 퇴원했던 국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의 마지막 환자가 다시 메르스에 감염됐다. 보건복지부는 12일 메르스 음성 판정을 받아 이달 초 퇴원했던 80번(35) 환자가 고열 등의 증상을 보여 서울대병원에 재입원해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환자와 접촉한 의사와 가족 등은 격리됐다. 이 환자는 기저질환으로 림프종을 앓고 있어 오랜 기간 메르스 바이러스에 양성을 나타냈다.

이달 초 이 환자가 최종 음성으로 확인되면서 국내 메르스 사태는 29일 자정 종식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 환자가 메르스 양성으로 확인돼 공식 종식일은 11월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다. /연미란 기자 actor@

국정교과서, 운명은?

내년 총선 앞두고 보수-진보 역사전쟁
2017년 대선따라 존속·폐지 갈릴 듯

민간 출판사가 발행해 온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가 2017년부터 국가가 발행하는 국정교과서로 바뀐다. 2011년 완전 검정 체제로 바뀐 뒤 6년 만에 국정제로 돌아가는 것이다. 하지만 보수와 진보 진영 간 역사전쟁이 시작되는 분위기라 1년도 시행되지 못하고 단명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당장 새정치민주연합은 유신시대로의 회귀라며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면 국정화 금지를 법제화하겠다는 방침이다. 2017년 대선에서 정권교체가 있을 경우 역시 복원 조치가 있을 전망이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방침을 밝히며 "역사적 사실 오류를 바로잡고 이념적 편향성으로 인한 사회적 논쟁을 종식시켜 궁극적으로 국민통합을 이룩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송병형 기자 bhsong@

Reignition of feud over management right in Lotte which is fatal to Korean economy

롯데, 경영권 분쟁 재점화… 한국 경제에 치명적



신동주 신동빈

The Shin brother's, Shin Dongju(62) and Shin Dongbin(61), dispute over management right is kicked into high gear and the country's fifth-largest conglomerate began to falter again.

The industry is concerned that the 2nd Lotte feud would create a negative effect on Korean economy since the company is confronted with some difficult problems such as corporate governance improvement, getting hotel Lotte listed and licensing the duty free shop etc.

Lotte was planning to finish the cross-shareholding by December this year as well as to get hotel Lotte licensed by the beginning of next year. According to Lotte, it costs the company seven trillion to reduce the cross-shareholding by 80% which is 6 times more than Lotte Shopping's profits last year. Besides, it is analyzed that the listing schedule might be delayed due to the lawsuit between Shin brother.

There is a great deal of uncertainty lying ahead for the change of the dominate stockholder due to ownership change and it is not clear if the company would be able to get hotel Lotte licensed when the court dispute is kicked into high gear.

An industry official says "The prolonging of such crisis would only create serious damages in the company and it would create a negative effect on economy growth" "Lotte family should make a decision with better responsibility and conscience"

신동주(62), 신동빈(61) 두 형제의 경영권 분쟁이 재점화되며 안정을 찾아가던 재계 5위 롯데그룹이 다시 흔들리고 있다.

재계는 지배구조 개선, 호텔롯데 상장, 면세점 인허가 등 난제가 쌓여있는 가운데 다시 터진 제 2롯데 사태가 한국경제에도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롯데는 올해 12월까지 순환출자 해소를 마무리할 예정이었으며 내년 초까지는 호텔롯데를 상장할 계획이었다.

롯데그룹에 따르면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순환출자를 80% 해소하는 데에만 7조원의 비용이 든다. 이는 한국 롯데계열사 중 최대 규모인 롯데쇼핑의 지난해 영업이익 6배에 달하는 액수다.

하지만 이번 소송전으로 호텔롯데 상장 일정도 차질이 불가피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향후 경영권 변동으로 실질적 지배주주가 바뀔 수도 있는 불확실성이 노출된데다 지배권에 대한 법적 분쟁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상장 절차를 제대로 진행할 수 있을 지 미지수다. 재계 관계자는 "사태의 장기화로 남는 것은 실추된 이미지와 막대한 손해뿐이며 국내 경제성장에도 부정적"이라며 "롯데 오너일가가 책임과 양심을 가지고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EDB 영어회화학원 대표강사 닥터 벤

국제

▲  북중 관계가 복원 중인 가운데 북한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 열병식을 놓고 중국 내 일각에서 조롱섞인 반응이 나오자 중국 관영매체인 **환구시보**가 이례적으로 '북한을 모욕말라'는 훈계조 사설을 게재했다.

▲ 미국의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 테크놀리지**가 삼성전자를 겨냥, 차세대 메모리칩을 일본 히로시마에서 양산하기 위해 8억3000만 달러(약1조 원)를 투자했다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 알리바바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타오바오**가 또다시 미국 정부가 지정하는 '짝퉁시장' 리스트에 오를 참이다. 미국 무역업계는 이를 계기로 중국과 지적재산권 전쟁을 불사할 채비를 하고 있다.

정치·사회

▲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 확정을 '역사 쿠데타'로 규정하고 "더이상 역사 앞에 죄를 짓지 말라"며 전면전을 선언했다. 문재인 대표는 내년 총선에서 승리, 법제화를 통해 국정화를 백지화하겠다고 선언했다.

▲ 성폭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무소속 **심학봉 의원**이 국회의 제명안 표결 직전 의원직 사퇴안을 제출했다. 국회가 사퇴안을 처리함으로써 심 의원은 윤리 문제로 제명당하는 첫 의원이라는 오명을 역사에 남기지 않게 됐다.

▲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13일 미국행을 앞두고 이번 한·미 정상회담 의제에 사드(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 **국방부**는 지난 10일 북한의 조선노동당 창건 70년 기념 열병식에서 등장한 KN-08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핵탄두가 탑재됐을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 12일 **교육부**는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발행하는 내용의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다음 달 2일까지 구분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 충암중·고교의 **부정 의혹** 사건의 여파로 경찰이 특별 단속에 나선다. 불량식품 사범에 대한 신고 보상금도 기존 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 12일 **복지부** 등은 "지자체가 저소득층에 대해 건강보험이나 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굳이 정비를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화재 등록 예고된 서울의 천주교 수도원 문화재청은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울 성북동 천주교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구 본원'을 문화재로 등록 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구 본원은 1935년 설립된 한국 가톨릭 최초의 내국인 남자 수도회인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본원 건물로 1955년 한국인 방유룡 신부가 설계했다. /문화재청 제공

산업·경제

▲  SK텔레콤과 TG앤컴퍼니, 폭스콘이 합작해 만든 중저가폰 '**루나**'가 인기다. 고성능을 갖추고도 출고가는 44만9900원이다. SK텔레콤이 31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실구매가는 9만3000원대까지 떨어졌다. 하루평균 판매량은 2000여대다.

▲ 삼성전자와 LG전자의 **부품 사업**이 미래 먹거리로 주목받고 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디스플레이가 최근 회사 실적을 이끌고 있다. LG전자는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VC(차량부품)사업본부 육성에 정성을 쏟고 있다.

▲ 삼성전자와 더불어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이끌고 있는 **SK하이닉스**가 3분기 실적도 상승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SK하이닉스의 3분기 예상 실적은 매출액 4조9000억원, 영업이익 1조 3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다.

▲ **금융감독원**은 내년부터 보험사들이 정당한 이유없이 보험금 지급 기한을 넘기면 최고 연 8%까지 지연이자를 물리기로 했다. 이는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을 미뤄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 KB투자증권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KB WM CAST**'를 통해 금융상품 소개, 자산관리, 시장 트렌드, 소비자보호제도 소개 및 초·중생을 위한 기초 금융상식 등 다양한 콘텐츠들을 제공하는 팟캐스트 방송을 서비스한다.

▲ 올해 증권업 활황에도 불구하고 **애널리스트** 39명이 여의도를 떠났다. 지난 7월 도입된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에 애널리스트의 운신의 폭이 좁아진 점, 리서치센터의 '매수' 일색의 보고서가 시장 신뢰를 잃은 점 등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 정부의 시내면세점 이익환수와 면세점 시장 독과점 구조 개선책 마련을 위한 **공청회**가 15일 열리기로 한 가운데 특허권을 따내기 위한 그룹 총수의 자존심 대결이 본격화됐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12일 인천 중구 롯데면세점 제2통합물류센터에서 열린 '상생 2020' 선포식에 참석해 5년간 1500억원의 사회공헌을 약속했다.

지키는 자 vs 뺏는 자… 총수 나선 면세점 결투

박용만 "中企 비중 높이고 이익 10~20% 환원"
최태원, 워커힐 수성·롯데 월드타워점 공략



사진 왼쪽부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박용만 두산 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정부의 시내면세점 이익환수와 면세점 시장 독과점 구조 개선책 마련을 위한 공청회가 15일 열리기로 한 가운데 특허권을 따내기 위한 그룹 총수의 자존심 대결이 본격화됐다.

연말 면세점 대진표는 ▲롯데면세점 소공점, 롯데vs신세계vs두산 ▲워커힐면세점, SKvs신세계vs두산 ▲롯데 월드타워점, 롯데vs신세계vs두산vsSK네트웍스로 확정되며 재계 오너들 간 사활을 건 진검승부가 예상되고 있다.

총수 간 자존심 대결은 12일 롯데와 두산이 기자간담회를 동시에 진행하면서 신호탄을 터뜨렸다.

양측은 연말 특허권이 종료되는 롯데면세점 소공점과 월드타워점의 특허권을 따내기 위한 입찰 경쟁을 벌인다. 소공점은 12월 22일, 월드타워점은 같은달 31일 특허가 만료된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그룹 총수로서는 드물게 12일 인천 중구 운서동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에서 롯데면세점이 개최한 '비전 2020, 상생 2020' 선포식에 참석해소공점과 잠실 월드타워점 수성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신 회장은 "롯데면세점은 세계 3위의 면세사업자로 성장했다"며 "한국 관광산업 발전과 면세산업 활성화라는 목표를 향해 35년간 쉬지 않고 달려온 결과"라고 강조했다.

롯데면세점 소공점과 월드타워점의 지난해 매출 합계는 2조4853억원이다. 호텔롯데의 면세사업부는 지난해 호텔롯데 전체 매출 4조7165억원의 83.7%인 3조9494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면세사업 영업이익은 3915억원으로 전체 영업이익 4073억원의 96%를 차지한다.

박용만 두산그룹 회장도 이날 "면세점 이익의 10~20%를 사회환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동현수 ㈜두산 사장은 이날 오후 면세점이 들어설 동대문 두산타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두산의 면세점 전략을 소개했다.

두산은 국산품 매장을 확대하고 중소·중견기업 제품을 전체 매장의 40%로 채우고 비율을 5년 뒤에는 5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주차시설은 면세점 1~2㎞ 반경안에 버스 100여 대를 동시에 세울 수 있는 전용 주차장 공간을 확보해 지역 상권과 공유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외에도 면세점 내 매장, 면세점과 연계한 각종 프로그램에 소상공인과 중소 패션 업체 등을 대거 참여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 일환으로 ▲인근 대형 쇼핑몰과 연계해 'K-Style' 타운 조성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전통시장과 연계한 야시장 프로그램 추진 ▲지역 내 역사탐방, 먹거리탐방 프로그램 운영 ▲심야 면세점 운영(현재 검토 중) 등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 브랜드 발굴에도 적극 나선다.

SK네트웍스는 워커힐 면세점 수성과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공략에 나섰다.

우선 워커힐 면세점 수성을 위해 지난해부터 면세점 리뉴얼 공사를 실시했다. 11월 3000평 이상 규모의 면세점으로 확장 오픈할 예정이다. SK네트웍스는 지난 서울시내 면세점 신규 특허 입찰경쟁 당시 입지로 삼았던 동대문 케레스타 빌딩도 신규 면세점 입지로 내세웠다. SK네트웍스는 케레스타 빌딩에 1만6259㎡ 규모의 면세점을 조성할 계획이다. 동대문의 특성을 살려 지역 상권과의 조직적이고 전략적인 협업 시스템을 구축·활성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신세계는 본점을 다시 내세웠다. 신세계는 7월 서울시내 신규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지적받았던 사안을 보강한다는 방침이다.

/박상길 기자 sweatsk@metroseoul.co.kr

신동빈, '상생2020' 선포식 참석

"200억 동반성장펀드 조성, 중기전용관 추진"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이 면세점 재승인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신 회장은 롯데면세점(대표 이홍균)이 12일 오전 인천 중구에 위치한 롯데면세점 제2통합물류센터에서 개최한 '상생 2020' 선포식에 직접 참석해 "성장만 하는 면세점이 아닌 상생을 위해 노력하는 면세점이 되겠다"고 밝혔다. 상생 2020의 사회공헌 규모는 5년간 1500억원이다.

신 회장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면세점으로 성장에만 집중하지 않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상생 2020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롯데면세점은 앞서 지난달 23일 5년간 외국인 관광객 1300만명 유치 등의 내용을 담은 '비전 2020'을 발표한 바 있다.

상생 2020의 주요 내용은 ▲중소·중견 기업과의 상생 ▲취약 계층 자립 지원 ▲관광 인프라 개선 ▲일자리 확대 등이다.

롯데면세점은 중소·중견 기업 상생을 위해 200억원 규모의 동반성장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12일 인천 중구에 위치한 롯데면세점 제2통합물류센터를 찾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오른쪽 첫번째). 이날 신 회장은 '상생 2020' 선포식에 참석해 선언문을 낭독했다. /롯데그룹 제공

중소브랜드 전용 매장도 국내 최대 규모로 조성한다. 현재 서울 소공동 본점과 잠실 월드타워점의 중소기업 매장은 각각 1505㎡, 1318㎡이지만 내년 12월까지 2805㎡, 2975㎡로 약 2배 가량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또 '인큐베이팅관'을 운영해 중소 브랜드를 발굴하고 입점, 해외진출, 홍보 등을 지원한다.

청년일자리 확대를 위해서는 '면세 전문가 육성 아카데미'를 개설해 청년과 여성 구직자들의 취업 경쟁력 확보에 나선다.

/김성현 기자 minus@

근현대 50→40%…고1, 두가지 교과서 수업

역사교과서 국정화 후속작업…역사수업 어떻게 되나

민간 출판사가 발행해온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가 국가 발행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현재 고등학생 1학년이 고3이 되는 2017학년도부터 국정교과서로 역사 수업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 학생들은 국정·검정 교과서를 모두 접하고 수학능력시험을 치르는 첫 사례가 돼 적잖은 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가 12일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결정을 공식 발표함에 따라 이르면 내달부터 국정 교과서 개발이 진행될 예정이다. 국정교과서의 새 이름은 '올바른 역사교과서'다. 교과서 개발은 대학교수, 교사, 역사 전문가 등이 포함된 교육부 산하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맡는다.

2017년부터 정부가 편찬하는 한국사 교과서가 학교에 보급되면 수업에서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국정화 방침에 따라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국사편찬委 내달 개발 착수
시민단체 '대안교과서' 거론
실 수업땐 참고서 다양할 듯

는 2017학년도 신입생부터 각각 1가지 종류만 배우게 된다. 모든 학생들이 동일한 교과서로 역사를 배우게 되는 것이다. 현재는 민간 출판사들이 중학교 역사 교과서 9종, 고등학교 한국사 8종을 개발해 학교가 이를 선택하는 방식이다.

가장 큰 변화는 교과서 내 서술 비중에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국정 전환을 부른 북한에 대한 서술을 축소하기 위해 근현대사 부분이 줄어들 것이란 관측이 많다. 교육부는 이미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한국사 교과서 성취기준에서 근현대사의 비중을 현행 50%에서 40%로 축소한 상태다.

수능도 문제다. 한국사 과목은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치르는



12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규탄 및 철회 요구 역사학도 긴급공동선언 기자회견에서 참석한 관련학과 학부생, 대학원생, 졸업생들이 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7학년도 수능부터 모든 수험생이 응시하는 필수과목으로 전환된다. 현재 1학년인 학생들은 고3때부터 국정 교과서로 역사를 배운다. 2년간은 검정으로, 1년은 국정으로 두 가지 교과서를 모두 배운 뒤 수능을 치르게 되는 셈이다.

한국사 교과서를 둘러싼 갈등이 논쟁에서 전쟁으로 격화됨에 따라 교실 안착까지는 적잖은 난관이 예상된다. 당장 국사편찬위원회의 집필진 구성부터 험로가 예상된다. 보수와 진보 학자의 불균형으로 편향성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곧바로 대한민국 건국과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기술, 북한에 대한 서술 등으로 이어져 정치권과 역사학계를 중심으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소지가 있다.

교사들의 반발도 문제다.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대안교과서가 거론되는 만큼 실제 교실 내에서 다양한 참고자료가 등장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한국사 교과서를 둘러싼 갈등이 교육계와 정치권, 역사학계, 시민단체 등 전방위로 확대됨에 따라 초기 안착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일선 고등학교 역사 교사는 국정교과서 전환과 관련, "실제 현장에서 교과서를 사용하는 교사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정부에서 말하는 좌편향적 서술부분은 정부의 국정 전환 논리로 쓰기 어렵다. 2013년 교육부에서 이미 수정명령을 내렸고 이 내용은 교과서에 반영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황우여 교육부 장관 겸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제 전환을 발표하며 "정부가 직접 역사적 사실에 대한 오류를 바로잡고 역사교과서의 이념적 편향성으로 인한 사회적 논쟁을 종식하고자 하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국정화 결정 이유에 대해 밝혔다.

/연미란 기자 actor@metroseoul.co.kr

이미 역사전쟁 치른 日, 역사교과서 장악으로 우경화 근간 이뤄

12일 교육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발표를 계기로 진영논리를 바탕으로 한 역사전쟁이 본격화 되고 있다. 전쟁의 결말은 한국사회의 방향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이미 일본에서 일어난 일이다. 일본은 우리보다 앞서 여러 차례 교과서 파동을 경험했고, 현재도 진행형이다. 특히 1997년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하 새역모) 발족 이후 역사교과서를 두고 학계, 정치권, 언론이 한데 어울려 한바탕 전쟁을 치러왔다. 현재까지의 결과는 일본 사회의 우경화다. 한국에서의 결말도 마찬가지일까. 단언하기는 힘들다. 일본이 20여년에 걸쳐 단계적인 고지 점령전 방식이었다면 한국은 한순간에 국정화로 승부를 보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단기전은 쉽게 전세가 뒤집힐 수 있다.

일본의 우경화는 역사교과서 문제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평가가 많다. 일본의 교과서는 검정제도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2000년 첫 우익 중학교 역사교과서가 출현했고, 이 교과서가 2001년 검정을 통과했을 때 채택률은 간신히 0.1%를 찍을 정도로 미미한 수준이었다. 2005년 8종의 역사교과서, 공민·지리교과서 등 우익교과서의 검정 통과가 늘어나고서야 그나마 전선이 모양을 갖춰갔다. 일본 사회의 우경화도 이때 표면화되기 시작했다.

전황은 2006년 아베 정권이 교육기본법을 개정하면서 변화가 왔다. 아베 정권은 교육기본법에 '나라와 향토를 사랑한다'는 애국심 강화 조항을 삽입했다. 문부과학성은 이를 근거로 2008년, 2009년 초·중·고교 학습지도 요령과 해설서를 만들었다. 요령과 해설서는 교사들의 수업에서 지침 역할을 한다. 해설서가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담는다. 교과서 검정규칙에는 '교과서는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따르지 않으면 안된다'는 규정이 있어, 민간 출판사들은 이에 따르지 않을 수 없다. 검정제도를 유지하면서 사실상 국정화 효과를 내는 방식이다. 이후 2014년 1월 문부과학성은 중·고교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논란이 되고 있는 독도와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등을 일본의 고유 영토로 명기한다. 2015년 검정을 통과한 일본 교과서들은 모두 이 해설서의 내용을 따랐다.

2014년의 해설서가 나오기 직전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는 "아베 정권이 일본 국민들을 교육하고 있다"며 "그들은 '우리가 야스쿠니 신사에 가는 것은 당연하다. 미국인들이 알링턴 국립묘지에 가는 것과 같다'고 일본 국민들에게 교육한다. 또 '독도는 당연히 일본 땅'이라고 가르친다"고 설명했다. 일본의 우익세력이 역사교과서를 주요 정치수단으로 삼았다는 이야기였다. 아베 총리는 그 중심에 있다. 그는 1993년 정계에 입문했다. 일본 경제가 붕괴되고 한국과 중국의 경제가 부상하면서 일본 사회가 우경화하기 시작하던 때다. 아베 총리는 정계 진출과 동시에 '역사검토위원회'를 창립했다. '역사검토위원회'는 4년뒤 새역모로 진화한다. 새역모는 우익 정치인들과 우익 학자들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 새역모는 극우 성향의 강사들을 세미나에 초청하고 이들을 적극 지원했다. 우익 교과서의 탄생과 확산은 모두 이들의 작품이다.

호사카 교수는 "2006년 1차 아베 정권이 들어서자 교육기본법을 고쳤고, 이때 집단자위권·헌법개정·위안부 부정·고노담화 수정 등 지금 말하는 모든 것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역사교과서의 장악이 일본 우경화의 근간이었다는 설명이다.

/송병형 기자 bhsong@

인터넷은행, 은·산 분리 장벽 무너트릴까

정부, 도입방안 제시했지만 국회 논의에 맡겨
기업의 은행 소유 금지규정 완화 여부가 큰 쟁점

인터넷전문은행에 은·산(은행·산업자본)분리 원칙을 완화하자는 법안들이 잇따라 제출돼 은·산분리의 벽이 무너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지난 6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나름대로의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안의 핵심골자는 '비금융회사의자본총액이 전체 자본의 25% 이상이거나 비금융회사의 자산합계가 2조원 이상'에 해당하는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의결권 있는 지분한도를 현행 4%에서 50%로 완화하되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대기업)집단을 완화대상에서 뺀다는 것이다.

아울러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현행 '은행 자기자본의 25%에 해당하는 금액과 해당 대주주의 은행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에서 자기자본 비율 규정만 25%에서 10%로 축소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정부는 은행법 개정안을 제출하지 않았다. 국회 논의에 맡기겠다는 것이었다.

가장 큰 쟁점은 기업(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금지하는 현행 은산분리 규정의 완화 여부이다.

현재까지 국회에는 지난 7월 새누리당 신동우 의원이 제출한 법안과 지난 6일 같은 당의 김용태 의원안 등 2건이 제출돼 있다.

신 의원안은 정부처럼 비금융주력자 지분한도를 50%로 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정부안과 대동소이하다.

김 의원안은 지분한도를 50%로 늘리면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대한 제외규정도 삭제했다. 그 대신 대주주에 대한 은행의 신용공여를 아예 금지하자는 방안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지난 6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터넷은행을 하겠다는 3개 컨소시엄의 지분구조 개정안에는 이들 법안의 내용이 이미 반영돼 있다.

이를테면 지난 1일 예비인가를 신청한 KT, 인터파크, 카카오 3개 업체 컨소시엄은 은·산분리 이후를 가정한 구도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은·산분리가 완화되면 비금융주력자인 현재의 간판업체가 최대주주가 될 것임을 예고한 것이다.

김용태 의원안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을 받는 대기업도 은행 지분을 50%까지 가질 수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현재 상호출자제한기업에 해당하는 KT가 큰 수혜를 볼 수 있다.

나아가서 다른 재벌기업도 향후 인터넷전문은행에 참여 확대를 꾀할 수도 있다.

현재는 SK(SK텔레콤)와 포스코(포스코ICT), GS(GS홈쇼핑, GS리테일), 한화(한화생명), 효성(노틸러스효성, 효성ITX, 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 등 대기업이 3개 컨소시엄에 주주로 참여하고 있다.

나아가 내년에 시작되는 2단계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과정에서 재벌기업이 전면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그렇지만 이들 의원의 은행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은·산분리에 대한 반대론이 작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2008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금융과 산업의 엄격한 분리를 요구하는 여론이 거세져 은·산분리에 큰 장벽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차기태 기자 folium@metroseoul.co.kr

최경환 경제부총리 '4시 발언'에 금융권 반발

"진짜 일은 문 닫고 시작…야근 밥 먹듯"



금융권에서 '4시 발언'을 둘러싼 갈등이 커지고있다. 은행원들은 최경환(사진)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금융개혁 관련 발언 중 '오후 4시 퇴근'을 거론한 것을 두고 현실을 모르는 소리라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앞서 최경환 부총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참석 차 페루를 방문, 11일(한국시간) 한국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오후 4시면 문 닫는 은행이 어디 있느냐. 입사하고서 10년 후에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도 일 안 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 한국 금융이 우간다보다 못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이라며 금융권 개혁을 주문했다.

12일 최 부총리의 발언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은행권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은행원들은 오후 4시에 고객 상대 업무만을 마칠 뿐, 진짜 업무는 이때부터 시작된다. 입출금 숫자를 맞추다 보면 저녁 7~8시는 돼야 퇴근이 가능하다.

한 은행권 종사자는 "창구 업무를 마감하고 나서도 일이 많다. 여러 추가 작업을 하다 보면 야근을 밥 먹듯이 하는 게 은행원"이라고 하소연했다.

최 부총리가 발언한 고액 연봉 문제에 대해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입사 10년차에 억대 연봉이 가능한 은행원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는 것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은행원 연봉은 수년째 공무원 수준의 상승률로 동결된 상태"라며 "시대에 맞지 않는 발언"이라고 일축했다.

/김보배 기자 bobae@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인쇄인	남궁호
대표이사 편집국장	이장규
광고문의	02)721-9851,3
독자센터	02)721-9861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206

정치인에 고가시계 선물, 정치자금법 위반일까

금품수수 혐의 논란 박기춘, 일부 혐의 재차 부인

정치인이 선물로 고가의 명품 시계를 받았다면 정치활동에 쓰였다고 봐야할까. 이 문제를 놓고 법조계가 뜨겁다. 정치자금법 제3조 1항은 정치자금을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 등 정치활동을 위해 정치인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과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명품 시계와 안마의자를 환가성이 강한 정치자금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주장과 정치 활동에 실질적으로 쓰이지 않았기 때문에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 충돌한 셈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엄상필 부장판사) 심리로 12일 열린 박 의원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문제가 또다시 거론됐다. 박 의원 측 변호인은 정치자금법 위반의 상당부분을 인정하면서도 "명품 시계와 안마의자가 정치자금법상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재차 주장했다.

검찰 측은 "정치인에게 주는 모든 금품은 정치 활동하는 데 쓰라고 준 것으로 봐야 한다"며 안마의자와 시계를 모두 정치 활동에 활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쟁점은 정치자금법 해석의 정도다. 실용적이거나 소모적인 물건도 폭넓게 보면 모두 정치활동에 쓰였다고 볼 수 있다. 정치인이 받는 대부분의 물건이 잠정적 정치 활동에 쓰인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좁게 해석하면 실제 정치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만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된다. 안마의자와 명품시계가 정치 활동에 실질적으로 쓰이지 않았다는 박 의원 측의 주장도 이 맥락에서 나온다.



박기춘 의원.

이에 대해 판사 출신인 이재교 변호사는 "(안마의자와 시계가) 직접 정치 자금에 쓰인 게 아니기 때문에 정치자금법에 포함시키기 애매한 측면이 있다"면서 "물품의 환가성 정도를 고려해 법원이 성격을 판단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치자금법위반을 넘어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박찬종(법무법인 이도) 변호사는 "시계, 안마 의자 등은 환가가 가능해 정치자금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사실 관계는 더 따져봐야 겠지만 (언론 보도를 전제로) 국토교통위원장이었던 박 의원이 건설업자에게 직무와 관련된 청탁을 받았다고 보면 뇌물죄가 맞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품이 당장 (특혜 등) 무언가에 쓰이지 않아도 언젠가 쓸 가능성이 정황상 있다면 포괄적 뇌물죄로 봐야 한다"고 사견을 밝혔다.

박 의원은 2011년부터 올해 2월까지 분양대행업체 대표 김씨에게서 현금 2억7000만원과 명품 시계 2점, 안마의자 등 총 3억58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4일 구속기소됐다. 이를 무마하려고 경기도의원 출신 정모(50·구속기소)씨를 시켜 그동안 받은 금품을 김씨에게 돌려준 혐의(증거은닉·교사)도 받고 있다.

/연미란 기자 actor@metroseoul.co.kr

경찰, 학교급식 비리 특별단속

충암 중·고교 비리 여파 불량식품사범 동시 척결 신고보상금도 상향 추진

충암중·고교의 급식회계 부정 의혹 사건의 여파로 경찰이 특별단속에 나선다. 불량식품 사범에 대한 신고보상금도 기존 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12일 경찰청은 올해 말까지 전국적으로 학교 급식 비리를 특별단속한다고 밝혔다.

중점단속 대상은 ▲각종 급식계약 관련 교직원과 납품업자간 유착, 이권개입, 특혜제공 ▲식자재 납품 부풀리기·과다청구, 회계서류 조작을 통한 급식비 편취 ▲원산지 허위표시, 저질·비위생적 급식 제공 등이다.

경찰청은 급식비를 빼돌려 가로채거나 횡령한 학교법인 및 교직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급식 관련 비리에 직접 가담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이익을 얻은 범행 주동자, 업체 대표 등도 수사한다. 범죄수익은 '기소 전 몰수보전' 등의 제도를 활용해 철저히 환수한다. 기소 전 몰수보전이란 범죄 혐의자를 기소하기 전에 범죄수익이나 이로부터 나온 재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금지해놓고 나서 유죄가 확정되면 몰수하는 제도다. /연미란 기자



새만금 건축현장서 근로자 4명 '추락' 12일 낮 12시10분께 전북 군산시 옥도면 새만금 만경3공구 제2배수문 건축현장에서 근로자 4명이 8m 아래 바닥으로 추락했다. 사진은 근로자 구조 모습. /연합뉴스

복지부 "지자체 저소득층 건보료 계속 지원"

장수·노인 관련은 수정·폐지 '과잉복지' 해소위한 제도 개선

보건복지부가 지자체의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을 계속 추진할 전망이다. 애초 복지부는 '유사·중복사업 정비' 대상을 정해 이 같은 지원을 제외할 예정이었지만 정부가 지자체 제도에 과도하게 간섭한다는 비판 여론을 의식해 정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다만 장수·노인 수당 관련 사업의 경우 기존 방침대로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수정·폐지를 유도할 계획이다. 지자체 중 장수·노인 수당을 제공하는 곳은 90여곳으로 알려져 있다.



12일 복지부 등는 "지자체가 저소득층에 대해 건강보험이나 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굳이 정비를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취약·소외계층인데다 관련 제도를 시행하는 지자체들도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현재 지자체 중 저소득층에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곳은 155곳으로, 모두 합쳐 157억원의 예산이 든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는 곳은 8곳이며 연 예산은 60억원 규모다. 복지부는 '과잉복지' 해소를 위해 지자체가 시행 중인 복지 사업 중 중앙정부의 사업과 유사·중복되는 것들을 폐지하거나 유사·중복을 피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유도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복지부는 특히 유사·중복 사업 중 저소득층 건보료·장기요양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과 노인·장수 수당 사업 등 2가지를 중점 정비 사업으로 보고 정비를 추진해 왔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지자체와 여론의 비판이 이어졌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성주 의원은 "송파 세 모녀의 비극적 사건 이후 빈곤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상황에서 부정수급을 막겠다는 명분으로 복지를 축소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성상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도 국감장에서 "저소득층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연미란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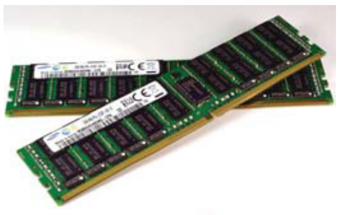
삼성·LG, 新수익원 'B2B부품' 육성 팔걷었다

삼성전자

반도체·디스플레이 견인

LG전자

車전장사업 적극 지원



삼성전자 20나노급 DDR4 모듈. /삼성전자 제공

삼성전자와 LG전자의 부품 사업이 미래 먹거리로 주목받고 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디스플레이가 최근 회사 실적을 이끌고 있다. LG전자는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VC(차량부품)사업본부 육성에 정성을 쏟고 있다.

반도체·디스플레이·차량부품 등은 대부분 기업간거래(B2B) 사업이다. 기술력만 확보되면 기업대 소비자 간 거래(B2C)에 비해 대외 환경에 영향을 덜 받고 안정적인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12일 전자업계와 증권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부품 사업 가치가 재조명받고 있다. 최근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이 주춤한 사이 반도체와 OLED 디스플레이가 회사의 버팀목 역할을 하면서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사업을 담당하는 DS부문은 올해 3분기 영업이익 약 4조4000억원을 기록, 삼성전자 영업이익(잠정치 7조3000억원)의 절반 이상을 책임진 것으로 분석된다.

4분기와 내년에도 삼성전자 부품사업의 강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경쟁업체와의 기술격차를 유지하면서 시장을 이끌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은 3차원(3D) 낸드와 파운드리(위탁생산) 확장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삼성전자가 3D 낸드와 파운드리 가동이 본격적으로 증가하는 내년에 반도체 사업에서만 영업이익 16조원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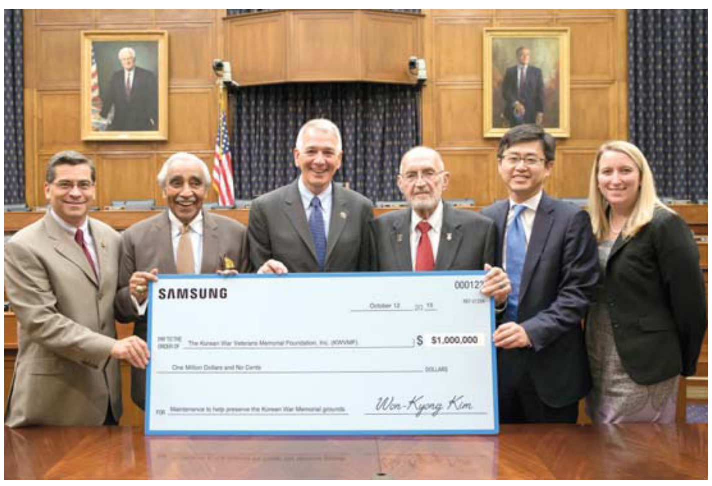
삼성디스플레이도 OLED를 중심으로 견조한 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 중저가 스마트폰에 OLED 디스플레이 탑재가 확산되는데다 중국 제조사들도 잇달아 OLED 패널을 탑재하는 등 외부 판매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LG전자는 국내 정보기술(IT) 기업 중에 가장 적극적으로 자동차 전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3년 7월 신설된 VC사업본부는 연구개발 인력이 3000명을 넘는 등 LG전자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LG전자는 현대차·메르스데스 벤츠·GM 등 완성차 업체와의 협업을 강화하고, 구글이 주도하는 커넥티드카 얼라이언스에도 핵심 멤버로 참여하고 있다.

현재 VC사업본부는 텔레매틱스·내비게이션·카오디오 등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주축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향후 전기차용 모터·인버터·컴프레서·공조 시스템 등의 역량을 강화하고, 스마트카의 안전과 편의 장치 시장도 적극적으로 공략할 계획이다. 관련 업계는 LG전자 VC사업부의 매출은 2020년까지 연평균 20%의 고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감덕식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GE, 히타치, 지멘스 등 많은 전자 기업이 B2C에서 B2B 기업으로 변신했다"며 "원가경쟁력으로 무장한 중국 등 신흥 기업들의 공세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갖추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한진 기자 hjc@metroseoul.co.kr



하비에르 베세라 하원의원(왼쪽부터), 찰스 랭글 하원의원, 랄프 아브라함 하원의원, 윌리엄 웨버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재단 이사장, 김원경 삼성전자 북미총괄 대외협력팀장 전무가 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진행된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재단 후원금 전달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삼성전자, 美 한국전 참전용사 재단 후원

기념관 유지·보수 위해 100만 달러 후원금 전달

삼성전자는 미국 워싱턴 D.C.에 소재한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재단 유지 보수를 위해 100만 달러를 후원했다고 12일 밝혔다.

삼성전자의 후원금은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관에 설치돼 있는 참전용사 동상 19개, 2500명의 참전용사의 얼굴이 새겨진 기념비, 전사자, 부상자, 실종자 추모 연못 등을 유지 보수하는데 사용될 예정이다.

후원금 전달식은 현지시간 9일 찰스 랭글 하원의원, 하비에르 베세라 하원의원, 랄프 아브라함 하원의원, 윌리엄 웨버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재단 이사장, 김원경 삼성전자 북미총괄 대외협력팀장 전무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미국 워싱턴 D.C.에서 진행됐다.

웨버 이사장은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관은 미국 수도에 있는 가장 인상적인 전쟁 기념관으로 이번 삼성의 후원으로 앞으로 오랫동안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희생 정신을 기념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국전쟁 참전용사이기도 한 랭글 하원의원은 "한국전쟁에서 미국이 한 역할은 우리 모두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고, 우리가 삼성을 통해 봤듯이 우리 사회와 경제에 이바지한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한국인들이 잊지 않고 기억해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삼성의 후원은 참전용사들의 고귀한 봉사와 희생이 미국에서도 널리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큰 감동을 준다"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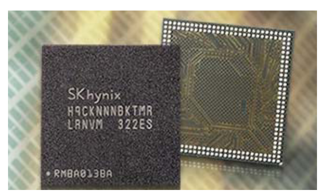
아울러 삼성전자 미국법인은 오는 16일을 자원봉사의 날로 지정하고 있어 워싱턴 D.C.지역 삼성전자 임직원들은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재단을 방문해 청소, 시설 보수 등을 할 예정이다.

/조한진 기자

'중국발 위기론' 뛰어넘은 SK하이닉스

3분기도 어닝서프라이즈

매출 4.9조·영업익 1.3조 D램비중증가·환율 효과



12일 증권가에 따르면 SK하이닉스의 3분기 예상 실적은 매출액 4조9000억원, 영업이익 1조 3000억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중국 정부가 막대한 자금력을 동원해 글로벌 반도체 업체를 인수 합병하면서 '중국발 위기론'까지 등장하고 있지만 SK하이닉스는 기술력을 앞세워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오는 22일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SK하이닉스는 주력 제품인 메모리 반도체 가격 급락세에도 불구하고 모바일 D램 비중의 증가와 원·달러 환율 상승 효과로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할 전망이다.

12일 증권가에 따르면 SK하이닉스의 3분기 예상 실적은 매출액 4조9000억원, 영업이익 1조 3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매출액은 지난해 3분기에 거뒀던 4조3000억원보다 14% 가량 늘고, 영업익은 당시 거둬들인 것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증권가는 SK하이닉스 3분기 예상 실적이 해당 기간에 D램 반도체 가격이 급락세를 보이는 등 대외 여건이 녹록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양호한 수준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정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D램 가격 하락으로 SK하이닉스 3분기 실적이 둔화하겠지만 환율 효과로 매출액 4조 9000억원, 영업이익 1조 3000억원을 기록해 시장 예상치를 충족시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송명섭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SK하이닉스의 3분기 영업이익은 높은 출하증가율과 환율 상승 효과에 따라 1조 3600억원을 기록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4분기에는 환율이 3분기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모바일 DRAM ASP 낙폭이 확대되고 PC DRAM ASP 하락도 지속될 전망"이라며 "영업이익 감익 규모가 현재 시장 예상치보다 클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SK하이닉스는 시장 트렌드를 빠르게 감지하고 PC용 D램 생산을 줄이고 모바일용 D램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전략을 진행 중이다.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 비중을 늘려 안정적으로 시장을 이끌어 가겠다는것이다.

SK하이닉스는 전체 D램 매출에서 PC용 제품 비중은 현재 28%에서 20% 선까지 낮추고, 모바일 D램은 기존 30% 선에서 40%대까지 끌어올려 수익성을 높일 계획이다. 글로벌 메모리반도체를 이끌고 있는 SK하이닉스가 미국과 중국의 공세를 뚫고 상승세를 이어갈지 주목된다.

/양성운 기자 ysw@

삼성, 스마트기기 액세서리 공모전 개최

'위노베이션 프로젝트' 선발



삼성전자가 스마트기기 액세서리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제2회 '삼성 위노베이션 프로젝트(WEnnovation Project)'의 참가자를 12일부터 모집한다.

'삼성 위노베이션 프로젝트'는 혁신적 아이디어를 발굴해 스마트기기 액세서리 생태계를 확장하고 우수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상생 협력 활동으로 작년에 이어 두 번째를 맞는다.

'삼성 위노베이션 프로젝트'는 스마트기기의 액세서리 개발 아이디어를 보유한 국내 중소기업, 스타트업, 개인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최종 선발된 10개 수상 팀에는 상금과 더불어 팀 당 5000만원의 상품화 지원금이 별도 지급된다. 또 삼성 임직원과 전문가의 멘토링, 해외 전시회 동반 전시, 디자인 자문과 사업화 지원 등 생산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이 지원된다.

실제 지난해 실시한 제1회 삼성 위노베이션 프로젝트에서 선정된 수상작은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2015 IFA에 전시됐으며 이 중 우수작은 연내 국내 판매를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에는 수출까지 이뤄질 예정이다. /양성운 기자

황창규 "KT 미래 먹거리, 통신서 싹 트는 것"

미래사업 통신 올인전략 임직원들에 이메일 보내


황창규 KT 회장이 지난달 서울 광화문 KT 사옥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미래 성장 전략을 설명하고 있다. /KT 제공

황창규 KT 회장이 미래 사업은 "탈(脫) 통신이 아닌, 통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사업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주장했던 탈(脫) 통신에서 벗어나, 통신 본원적 경쟁력을 강화해 신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올인전략으로 풀이된다.

지난 8일 한글날 연휴가 시작하기 직전 황 회장은 임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통신 역사 130년을 이끌면서 축적된 KT의 통신 경쟁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업과 미래 먹거리를 찾자고 강조했다.

황 회장은 "기존의 네트워크를 인텔리전트 기가인프라로 발전시키고, 여기에 각종 산업을 엮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내는 것이 KT가 추구하는 미래사업의 핵심"이라며 "자율주행차, 차세대미디어,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모두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새로운 사업과 미래 먹거리는 지금 우리의 일에서 싹트는 것"이라며 "이미 지난 1년 반 동안의 노력으로 여러 가지 성과가 나타났고 그 결과 기가인터넷, 기가오피스, 프라이빗 LTE, 스마트 에너지 등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이 많아졌다"고 자평했다.

지난 1월 KT 회장으로 취임해 임기 반환점을 돈 그는 임직원들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며, 현장에서 탄탄한 체계 아래서 마음껏 뛸 수 있도록 지원 체계도 보강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또 생활의 일부이던 통신이 생활의 모든 것으로 바뀌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맞을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강력하고 진화한 통신 인프라가 평범한 산업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며 산업과 인간의 삶이 혁명적으로 바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것이 우리가 이끌고자 하는 '4차 산업혁명'이고 이런 비전이 구체화된 모습이 바로 '기가토피아'"라며 "미래에 대한 자신감과 의지로 힘차게 나아가자"는 당부로 이메일을 끝맺었다.

차세대 먹거리의 바탕이 통신에 있음을 강조한 황 회장의 이런 발언은 미래를 위해 탈통신에 사활을 건 경쟁사의 인식과는 다소 다르다.

통신업계는 포화 상태에 이른 국내 시장의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 최근 부쩍 탈 통신에 방점을 찍고 있다. SK텔레콤은 지난 4월 장동현 사장이 주재한 기자간담회에서 차세대 플랫폼 기업으로의 변신을 선포했다. LG유플러스는 지난 6월 이상철 부회장이 2020년까지 IoT 세계 1위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선언한 뒤 IoT 서비스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문경 기자 hm0108@metroseoul.co.kr

SKT "필요한 만큼 충전해 쓰세요"

선불 스마트폰 요금제 출시



SKT 모델이 선불(PPS) 스마트폰 요금제를 출시를 알리고 있다. /SKT 제공

SK텔레콤이 월정액 없이 필요한 만큼 충전을 통해 음성통화와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선불(PPS·Pre-Paid Service) 스마트폰 요금제를 선보인다.

12일 SK텔레콤은 가입자 본인의 통화패턴에 맞게 일 기본료와 음성통화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PPS 일반, 라이트, 프렌즈, 플러스, 레귤러, 프리미엄 등 총 6종의 요금제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PPS스마트폰 일반은 일 기본료가 없는 대신 음성통화료가 초당 4원이며, PPS스마트폰 프리미엄은 일 기본료가 500원인 대신 음성통화료가 초당 2.3원이다.

선불 스마트폰 요금제는 부가세를 포함해 5000원부터 5만원까지 다양한 단위로 충전할 수 있다. 사용기한은 충전금액에 따라 각각 30일, 50일, 180일, 365일로 나눠진다. 기본 충전 금액에서 음성통화, 문자, 유료부가서비스, 일 기본료 등 이용한 만큼 차감된다.

데이터의 경우 100MB(메가바이트),500MB, 1GB(기가바이트), 2GB 등 4가지 단위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부가세를 포함해 2000원~3만3000원 대다. 데이터는 충전 단위와 상관없이 충전 후 1년 간 사용 가능하다.

요금 충전은 온라인T월드, ARS, 전국 SK텔레콤 지점, 대리점에서 PPS카드, 현금, 신용카드로 가능하다. 선불 스마트폰 요금제 가입자도 콜키퍼, 발신번호표시, 스팸SMS차단 등 부가서비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다.

/정문경 기자

현대重 노사, 임금협상 타결 초읽기

새 집행부 선거 앞두고 사측과 집중교섭 나서


현대중공업 태양광공장 전경

현대중공업이 현재 노동조합 집행부 체재에서의 임금협약 타결을 위한 초읽기에 돌입했다.

현대중 노사가 수일 내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면, 내달 노조의 새 집행부 선거가 예정돼 있어 교섭이 장기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12일 현대중공업 노사는 울산본사에서 임금협상 교섭을 진행했다.

노사는 13일까지 집중교섭을 이어가며 가능하면 현 노조 집행부 체제에서 접점을 찾는다는 방침이다.

노사간 교섭에서 사측은 △호봉승급분 2만3000원 반영 △초임인상에 따른 임금조정(노사공동위원회에서 결정, 호봉승급 외 최하 2만7000원 인상) △생산성 향상 격려금 100%(약정 통상임금) △안전목표 달성 격려금 150만원 △사내근로복지기금 20억원 출연 △임금, 직급체계 및 근무형태 개선을 위한 노사공동위원회 구성 등을 약속했다.

반면 노조는 △임금 12만7560원 인상 △직무환경 수당 100% 인상 △성과연봉제 폐지 △고용안정 협약서 체결 등을 요구했다.

현대중 노조 관계자는 "우리 역시 교섭 장기화를 원치 않는다"며 "하지만 아직까지 사측 제시안과 노조 요구안이 많이 차이난다. 현 집행부 체제에서 합의점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해 교섭에 임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현대삼호중공업은 9일 노조 찬반투표를 거쳐 기본급 2만3000원 인상, 격려금 100%와 150만원 지급, 직무환경수당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올해 임금협상을 타결했다.

노조는 조합원 총회에서 찬반투표를 통해 59.2%의 찬성률로 임협 잠정합의안을 가결했다.

노조는 기본급 15만9900원(8.27%) 인상,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적용 등을 요구했으나 사측 반대에, 교섭을 통해 이같은 접점을 도출했다.

전날인 8일 현대미포조선 노사는 울산본사 한우리회관에서 강환구 사장과 강원식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임금협상 조인식을 열었다.

노사는 기본급 2만3000원 인상(정기 호봉 승급분), 격려금 100%와 150만원 지급, 성과금 지급기준 상향, 사내 근로복지기금 10억원 출연 등에 합의했다.

현대미포조선은 1997년 이후 19년 연속 무파업 노사협상 타결을 이어갔다.

한편 현대중공업의 3분기 영업실적은 시장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됐다.

전재천 대신증권 연구원은 "3분기 영업손실은 390억원으로 시장 기대치를 밑돌 것"이라며 "현대삼호중공업 적자, 플랜트와 건설기계 부진으로 적자가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동익 현대증권 연구원은 "조선업종의 3분기 실적은 전체적으로 예상치를 웃돌 것"이라며 "지난 분기 어닝쇼크로 시장 예상치가 낮아진 상태고, 일회성 이익의 영향도 있어 실적의 질 자체는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설명했다.

/이정필 기자 roman@

KT 이동면 원장, 5G 리더십 제시

'ITU텔레콤 월드' 기조연설



KT는 이동면(사진) KT 융합기술원 원장이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진행 중인, 'ITU 텔레콤 월드'에서 '5G로 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기조연설을 통해 KT 5G 기술의 역량을 알리고, 5G 시대구현을 위한 글로벌 비전과 기술 이슈를 제시한다고 12일 밝혔다.

ITU 텔레콤 월드는 ITU가 주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정보통신 전시회 및 글로벌 포럼으로 매년 세계 각국에서 개최된다. 특히 올해는 ITU설립 150주년을 기념해 전 세계 60여명의 장·차관과 통신사업자가 참가하고, 50개국 150여개 전시관을 운영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규모가 크다.

이 원장은 이번 포럼의 5G 세션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5G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사물인터넷(IoT)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통신산업뿐만 아니라 에너지, 자동차, 건축, 농업 등 타 산업과의 융합을 통한 공동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KT가 5G 기술개발을 선도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고 5G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무엇보다 우선 5G 기술의 국제표준화가 이뤄져야 된다고 주장했다.

ITU 의장단을 보유하고 있는 KT는 그동안 ITU와 공동 개최했던 'ITU 한·중·일 CTO 자문회의'에서 5G의 미래비전과 주요 이슈를 제기하고, 글로벌 통신장비제조사들이 집결한 '5G R&D(연구개발) 센터'를 개소하는 등 5G 기술개발 및 글로벌 표준화를 위해 노력 중이다. /정문경 기자



탄생 100주년… 재조명 받는 거인 '정주영'

음악회·학술심포지엄 등 다양한 기념행사 개최

고 아산(峨山)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사진)의 업적과 철학이 탄생 100년을 맞아 재조명된다.

'아산 탄신 100주년 기념사업 위원회'(위원장 정홍원)는 정 명예회장이 태어난 11월 25일을 앞두고 10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100주년 기념행사는 국가 경제와 사회 발전에 기여한 '아산 정주영'의 생애와 가치관을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할 수 있도록 기념식, 학술심포지엄, 음악회, 사진전으로 구성했다. 11월 중 열릴 예정이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개척정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아산의 정신을 표현한 '아산 100년, 불굴의 개척자 정주영'을 슬로건으로 잡았다. 정 명예회장의 업적을 되새기고 현시대에 아산의 철학과 도전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한다.

대표 행사인 100주년 기념식은 정 명예회장의 생일 전날인 11월 24일 서울 하얏트호텔 그랜드 볼룸에서 개최한다.

기념식은 정·재계 및 학계, 사회단체, 가족, 범현대가 임직원 등 5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아산의 생애를 기리는 회고사, 아산의 정신과 성취를 담은 기념영상 등을 통해 정 명예회장을 회고할 수 있도록 진행한다.

11월 18일에는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100주년 기념 음악회가 열린다. 정명훈 서울시향 예술감독의 지휘로 유럽 명문 드레스덴 국립 관현악단이 '베토벤 교향곡 2번', '베토벤 교향곡 3번(영웅)'을 연주한다.

100주년 기념 학술 심포지엄은 23일 하얏트호텔에서 열린다. 학술 심포지엄은 아산의 리더십과 철학을 계승하기 위해 '아산, 그 새로운 울림 : 미래를 위한 성찰'을 주제로 개최한다.

기념 사진전은 23일과 24일 하얏트호텔에서 열린다. 맨손으로 세계적 기업을 일군 아산 정 명예회장의 생애와 인간적 면모 등이 사진으로 재구성된다고 위원회는 전했다.

/이정필 기자 roman@

'블랙' 입은 쉐보레, 점유율 10% "고속 질주"

한국지엠

퍼펙트 블랙 에디션 출시 아베오 등 인기모델 4종 임팔라, 국내생산 검토 중



12일 서울 논현동 SJ쿤스트할레에서 열린 쉐보레 퍼펙트 블랙 에디션 출시 행사에서 세르지오 호샤 한국지엠 사장(왼쪽부터), 마크 코모 한국지엠 부사장, 스티브 김 한국지엠 상무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지엠 제공

쉐보레가 특별기획한 검은 옷을 입고 내수점유율 10% 달성에 나섰다.

쉐보레는 12일 아베오, 크루즈, 트랙스, 올란도에 블랙테마를 입힌 퍼펙트 블랙 에디션 4종을 출시했다. 이는 쉐보레의 첫 번째 디자인 에디션으로 향후 3년간 주력 모델의 블랙 에디션이 추가로 출시될 예정이다.

이번 블랙 테마는 외관뿐만 아니라 휠, 인테리어 등에도 적용됐다.

마크 코모 한국지엠 부사장은 "미국에 임팔라 미드나잇 블랙 에디션이 있지만 전 차종에 적용하지는 않았다"며 "쉐보레는 국내시장에 판매하고 있는 모든 라인업에 블랙 에디션을 입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4개 차종을 블랙 에디션으로 출시한 이유는 대중적이면서도 친근한 모델이기 때문"이라며 "블랙 에디션의 첫 시작을 알리는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블랙 에디션 출시에 따른 4개 차종의 추가 생산은 없다. 쉐보레는 고객수요에 맞춰 대응할 방침이다.

쉐보레 퍼펙트 블랙 에디션의 가격은 ▲아베오 세단 1.4 터보 1820만원 ▲크루즈 1.8 가솔린 2064만원 ▲크루즈 1.4 터보 2177만원 ▲트랙스 1.4 터보 2290만원 ▲트랙스 1.6 디젤 2477만원 ▲올란도 2.0 LPGi 2452만원 ▲올란도 1.6 디젤 2683만원이다.

한국지엠은 블랙 에디션 4종을 포함해 올해 크루즈 부분변경 모델, 스파크, 임팔라, 트랙스 디젤, 캐딜락 CTS·ATS 등 10개 제품을 선보였다.

코모 부사장은 "올해 두 자리 수 내수점유율 달성 가능성이 높다"며 "8월 10%, 9월 11%의 점유율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 추세라면 올해 안에 점유율 10% 달성도 가능하리라 본다"고 말했다.

올해 1~9월 한국지엠은 11만3996대를 판매해 전년 동기 대비 3.2% 증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지엠은 지난해 국내에서 15만4381를대 판매해 9.3%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한 바 있다.

이날 세르지오 호샤 한국지엠 사장은 전 세계로 파장이 번지고 있는 폴크스바겐 디젤모델 배출가스 조작사건과 관련, 자사 디젤 차량은 국내외 배출가스 기준을 모두 충족한다고 강조했다.

호샤 사장은 "GM(제너럴모터스)은 공식적으로 경쟁사의 이슈에 발언하지 않겠다"며 "GM은 지속적으로 한국시장에서 고객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디젤 모델 라인업을 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임팔라 국내 생산에 대해 "국내에서 생산하기 위해 많은 집중을 하고 있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현재 글로벌 생산조직과 부평2공장에서 임팔라를 생산하는 것에 대해 검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팔라는 본격 판매가 시작된 지난달 1634대를 팔았다. 당시 계약 후 고객에게 인도되지 않은 임팔라는 8000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용기 기자 yonggi@metroseoul.co.kr

SK브로드밴드

5.6Gbps 케이블 모뎀 개발 연동시험·필드테스트 완료

SK브로드밴드는 광동축혼합망(HFC망)의 인터넷서비스에서 다운로드시 최대 5.6기가(Gbps) 속도 제공이 가능한 케이블 모뎀을 국내 최초로 개발하고 연동시험과 필드 테스트를 완료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차세대 케이블 모뎀의 개발로 SK브로드밴드는 FTTH망(댁내광가입자망)에서의 10기가 인터넷서비스와 함께 HFC망에서도 5.6기가의 인터넷서비스가 가능한 기술을 보유하게 됐다.

이번에 개발한 모델 기술은 Mhz 주파수 32개를 묶어 1.6 Gbps 속도를 제공한다. 192 Mhz 블록 주파수 2개를 묶어 4Gbps 속도를 제공함으로써 최대 5.6Gbps의 속도를 제공할 수 있는 기술이다.

이 기술은 10기가 케이블 인터넷서비스 제공을 위한 닥시스 3.1(DOCSIS 3.1) 기술 표준으로 개발됐다.

/정문경 기자 hm0108@

'아우디 코리아' 유경욱, R8 LMS컵 2위



日 후지 서킷 10라운드서

팀아우디 코리아의 유경욱(사진) 선수가 지난 주말 일본에서 열린 '2015 아우디 R8 LMS컵' 10라운드에서 총 18명의 선수 중 2위로 시상대에 올랐다.

12일 사측에 따르면 유 선수는 5월 영암에서 펼쳐진 '2015 아우디 R8 LMS컵' 4라운드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데 이어 이달 10일 일본 후지 서킷에서 열린 10라운드 경기에서도 2위를 기록했다.

종합 우승은 전 F1드라이버로 말레이시아 출신인 알렉스 융 선수가 차지했다. 3위는 스타스피드 레이싱팀의 신인인 홍콩 출신 웨이 펑 통 선수에게 돌아갔다.

/이정필 기자

KB증권의 실험… 팟캐스트로 고객 자산관리

다양한 콘텐츠 제공 노력
'보고 듣는' 금융정보될 것



KB투자증권이 12일 오디오·비디오 파일의 콘텐츠를 인터넷망을 통해 제공하는 팟캐스트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KB WM CAST'를 선보였다. /KB투자증권 제공

KB투자증권이 12일 팟캐스트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KB WM CAST'를 선보였다. 팟캐스트는 오디오·비디오 파일의 콘텐츠를 인터넷망을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다. 스마트폰 등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다.

KB WM CAST는 유비쿼터스 자산관리를 기치로 내걸고 증권투자정보부터 금융상품 소개, 자산관리, 시장 트렌드 등 다양한 콘텐츠들을 제공하기 위해 개발됐다. 금융시장 소식과 함께 소비자보호제도 소개와 초·중생을 위한 기초 금융상식을 다루는 공익적인 콘텐츠들도 마련됐다.

KB WM CAST의 특징은 자칫 어렵게 느낄 수 있는 금융정보를 쉽고 지루하지 않게 제공한다는 것이다. 대부분 5분 이내의 짧은 동영상으로 제작됐으며 KB투자증권의 애널리스트와 상품기획 담당자들이 직접 출연해 알기 쉽게 설명해준다.

KB투자증권 관계자는 "업종 분석 및 시장 전망을 애널리스트들이 직접 말로 설명해줌으로써 어렵게 읽는 보고서가 아닌 쉽게 '보고 듣는' 리서치 정보가 될 것"이라며 "KB투자증권이 추천하는 상품과 신상품 소개와 함께 펀드, 랩어카운트, ELS/DLS 등 복잡하고 어려운 상품별 특징들을 쉽게 풀어놓은 '금융상품 투자에 안내'가 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KB WM CAST의 또 다른 특징은 방송국 편성 시스템을 도입해 새로운 콘텐츠를 정해진 시간에 업로드 한다는 점이다. 현재 대다수의 동영상 애플리케이션들은 콘텐츠 업로드 시간이 일정치 않아 어떤 콘텐츠가 새롭게 올라오는지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KB WM CAST는 매주 10여편 이상의 콘텐츠를 정해진 시간에 업로드 해 사용자들이 편성시간에 맞춰 콘텐츠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편리성을 더했다.

사용자들은 동영상을 보고 원하는 상품이 있거나 궁금한 점이 생기면 곧바로 MTS나 고객센터로 연결해 문의할 수 있다.

이외에도 KB투자증권 직원들만 볼 수 있는 직원교육 코너에서는 전임직원이 사내 정보를 공유하고 각종 업무 매뉴얼을 익힐 수 있도록 했다. KB투자증권은 금융상품에 대한 일선 직원들의 이해도를 높임으로써 불완전판매의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KB WM CAST는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대부분의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다. 단 기존 KB투자증권 계좌 고객 중 추가 회원가입을 통해 프리미엄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캠프'는 애플리케이션에서도 똑같이 가입 후 시청 가능하다.

KB WM CAST는 KB투자증권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원하는 콘텐츠를 보고 들을 수 있는 팟캐스트 기반에 착안해 올 봄부터 기획했다. 지난 3개월 동안 KB투자증권 내부에서 시범 운영하며 시스템 완성도와 콘텐츠 확보 등 충분한 검토기간을 거쳐 이번에 공식 오픈했다.

KB투자증권은 이를 위해 기존 홍보실을 미디어센터로 확대 개편하고 스튜디오를 구축했다. 미디어센터는 방송 기획, 편성, 제작에 대한 총괄과 온라인 마케팅을 지원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KB투자증권은 현재 14개인 리테일 영업망의 열세를 보완할 수 있는 신 채널로 WM CAST를 통한 온라인 마케팅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KB투자증권의 KB WM CAST는 구글 플레이, 앱스토어에서 검색해 설치할 수 있다.

/김보배 기자 bobae@metroseoul.co.kr



미래에셋 '우리아이 글로벌리더 대장정' 출정식 글로벌리더의 자질을 키우기 위해 지난 10일부터 3박4일 일정으로 진행되는 미래에셋자산운용 우리아이글로벌리더대장정에 참가한 학생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미래에셋자산운용 제공

생보재단, '고위험임산부 지원' 2000명 넘었다

저출산해소 위한 의료비 지원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저출산해소를 위해 지난 7년간 출산 전·후 의료비를 지원한 고위험 임산부가 2000명을 넘어섰다고 12일 밝혔다.

고위험 임산부는 임신 중이나 출산 중 또는 출산 직후에 고령이나 질병으로 인해 임산부나 태아의 건강이 위험에 노출된 임산부를 말한다.

통계청의 2013년 자료에 따르면 고령산모 증가로 산모 중 네 명 중 한명 이상(약 27%)이 고위험 산모로 분류되며, 조산아 및 저체중아를 출산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 생명보험재단은 지난 2009년 국내 최초로 고위험 임산부들의 의료비와 산모 및 영아 건강관리 지원을 시작, 올해까지 16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해 최근 2000번째 산모를 지원하게 됐다.

재단은 축하의 의미로 2000번째 산모로 선정된 A씨에게 의료비와 선물을 전달하고 앞으로도 건강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한편 재단이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을 수행한지 7년째 되는 올 해, 정부는 7월부터 고위험 임산부(약 13만명)에 대해 입원 진료비 본인부담을 20%에서 10%로 경감하는 등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을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유석쟁 생명보험재단 전무는 "저출산은 우리사회가 함께 극복해나가야 할 과제"라며 "재단은 고위험 임산부들이 A씨와 같이 용기를 내 건강한 아이를 출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의료비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생명보험재단은 지난 2008년부터 삼성, 교보, 한화 등 국내 19개 생보사들이 뜻을 모아 공동으로 사회공헌기금을 출연해 설립한 공익재단이다. 저출산해소 부터 치매노인 지원사업에 이르기까지 전생애에 걸친 7대 목적사업을 수행해오고 있다.

/김보배 기자

보험금 늦게 지불할수록 이자 늘어난다

최대 8% 지연이자 붙어



조운근 보험상품감독국장이 12일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보험금 늑장지급 행태 개선을 위해 지연이자를 물리는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제공

보험사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금 지급 기한을 넘기면 최고 연 8%까지 지연이자를 물게 된다. 이는 보험사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금 지급을 미루는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감독원은 보험금 지급 관행 개선 차원에서 지연 기간이 길어질수록 더 높은 지연이자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현행 규정은 생명·건강보험 등 대인보험은 보험금 청구일로부터 3일, 화재·배상 책임보험 등 대물보험은 보험금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이 기간을 넘긴 보험금 지급 건수는 101만건으로 전체의 2.4%를 차지했다. 금액으로는 3조6000억원으로 전체 보험금 중 10.3%에 달한다.

금감원은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것은 일부 보험회사의 부당한 업무처리 행태 등에 따른 것으로 판단,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약관에서 정한 사고보험금 지급기일을 넘기지 않도록 별도 이자를 부과하기로 했다.

지연기간에 대해서만 보험계약대출 이율을 적용한 기존 관행에 비하면 보험사 입장에선 부담이 늘게 된다.

금감원은 지급기일의 31일 이후부터 60일까지는 보험계약대출이율에 연 4.0%, 61일 이후부터 90일 이내에는 연 6.0%, 91일 이후 기간에는 연 8.%의 가산이자를 지연이자 성격으로 추가 지급토록 했다.

다만 재판이나 수사기관의 조사,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 조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종료된 이후부터 지연이자가 적용된다.

금감원은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해 내년부터 개선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조운근 보험상품감독국장은 "지연기간에 따라 보험계약대출 이자에 지연이자를 최고 8.0%까지 추가로 얹어 보험금을 가입자들에게 돌려주도록 하겠다"며 "이로써 보험가입자의 경제적 손실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보배 기자

증권가 떠나는 애널리스트

올해 39명 줄어… 4년째 ↓
계약직 많고 운신 폭 좁아

'증권업계의 꽃'이라 불리는 애널리스트가 여의도를 떠나고 있다.

12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전날 기준으로 협회에 등록된 58개 증권사에 소속된 애널리스트 수는 총 1120명이다. 이는 국내 증권사 애널리스트 수가 정점을 찍었던 지난 2011년 2월 말(1517명)에 비해 400명 가까이 감소한 것이다.

애널리스트 수는 2012년 말 1399명에서 2013년 말 1285명으로 줄어든데 이어 지난해 말에는 1159명으로 감소했다. 올해 들어서만 39명이 증권가를 떠났다.

증권사 리서치센터에 소속된 애널리스트는 국내외 주식·채권시장과 파생상품시장, 상장사 등을 분석하고 투자전략을 수립하는 역할을 한다. 젊은 나이에 억대 연봉을 벌수 있는 몇 안 되는 직종으로 알려져 선망 받는 직업군으로 꼽히기도 했다.

반면 리서치센터는 업무 특성상 증권사 안에서 돈을 벌기보다 비용이 들어가는 사업부로 인식돼 수년간 이어진 증시 침체와 그로 인한 구조조정의 우선순위가 되기도 했다. 계약직 신분이 많아 구조조정이 상대적으로 수월한 측면도 있다.

더욱이 올해 상반기 증시 활황과 거래대금 증가로 증권사들의 실적이 크게 개선됨에도 불구하고 애널리스트의 감소세가 지속되는 양상이다.

업계에서는 지난 7월 도입된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 강화로 애널리스트들의 운신의 폭이 좁아진 점, 리서치센터의 '매수' 일색의 보고서가 시장의 신뢰를 많이 잃은 점 등이 애널리스트의 입지를 좁히고 있다고 보고 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증시 불황과 같은 구조적 원인도 존재하지만, 애널리스트의 미흡한 분석 능력, 미공개 정보 이용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강화 등도 애널리스트의 활동 범위를 위축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증권사별 애널리스트 수는 NH투자증권과 신한금융투자가 각각 78명으로 가장 많다.

반면 유화증권(3명), 바로투자증권(3명), 리딩투자증권(4명), 한양증권(6명), 부국증권(6명) 등은 애널리스트 수가 10명이 채 안 된다.

/김보배 기자 bobae@metroseoul.co.kr



(왼쪽부터) 전대근 코스콤 전무이사, 김형주 한국예탁결제원 IT본부장, 이호철 한국거래소 부이사장, 정연대 코스콤 사장, 이윤재 부산시 서비스금융과 과장, 빈대인 BNK부산은행 부행장이 지난 8일 코스콤 부산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코스콤 제공

코스콤, 부산지역 핀테크 지원센터 개소

코스콤(구 한국증권전산)은 지난 8일 부산지역 핀테크 생태계 구축 지원과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부산센터를 개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코스콤은 부산 국제금융센터(BIFC) 52층에서 '코스콤 부산센터' 개소식을 열고, 신시장 개척을 위한 거점 마련을 알렸다.

코스콤은 부산센터에 부장과 차장급 직원 1명을 파견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글로벌 핀테크산업 진흥센터' 관련 업무를 지원, 부산지역 내 핀테크 산업 환경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또한 파생시장 활성화 정책과 관련해 부산에 위치한 금융투자기관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부산 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신규 시장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정연대 코스콤 사장은 "코스콤이 부산에도 거점을 마련했다"며 "부산센터를 중심으로 금융IT 활성화 전략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보배 기자

개인투자자 주식거래 1년새 급증

일평균 주문량, 전년比 58%↑

올해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투자자의 주식거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지난 6일까지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투자자의 일평균 주문건수는 지난해 180만3778건보다 57.82% 증가한 284만6573건에 이른다.

전체 주문건수 중 개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53.43%로 지난해 51.83%에서 1.6%포인트 늘어났다.

같은 기간 개인이 1만주 이상 대량 주문한 경우는 일평균 2만3338건으로 지난해 2만610건보다 13.23% 증가했다.

특히 미래산업의 개인투자자 대량주문 비중은 12.59%로 가장 높았고 우리종금(7.79%)과 SK증권(5.86%), 동양(5.36%), 대영포장(5.27%)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개인이 1억원 이상 주문한 경우는 일평균 1만106건으로 지난해 1만656건보다 5.16% 줄었다.

1억원 이상 주문한 개인투자자가 가장 많이 산 종목은 삼성전자로 전체에서 2.43%의 비중을 차지했다. 그 외 삼성물산과 삼성SDS는 각각 2.31%, 1.9% 순이었다. 한미약품(1.81%), 엔씨소프트(1.64%) 등도 거래 상위에 이름을 올렸다. /김보배 기자

조영제 前금감원 부원장, 금융연수원장 취임



조영제(58·사진)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금융연수원 원장으로 취임했다.

12일 조 원장은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금융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고품질 연수서비스를 제공하고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인재 양성에 힘써 달라"며 "금융연수원 임직원은 항상 고객의 입장에 서서 고객이 감동할 최상의 연수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자"고 당부했다.

조 원장은 1980년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5년 한국은행에 입행했다. 1987년과 1994년 연세대 법학석사와 박사학위를 각각 취득한 뒤 1996년부터 1997년까지는 독일 막스플랑크 연구소에서 연구원을 역임했다.

1999년부터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국 팀장, 독일 프랑크푸르트 주재원, 외환업무실 실장, 일반은행서비스국장, 은행·외환·저축은행·신용카드·상호금융 감독·검사부서 담당 부원장 등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다.

한편 나상욱 전 한국은행 발권국 국장도 금융연수원 신임 부원장으로 취임했다. /김보배 기자



미래에셋증권, 올해 마지막 연금 이벤트 개최 미래에셋증권은 연금저축 가입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연금저축 미생(미래를 생각하는) 피날레',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고객을 대상으로는 하는 '연금동맹 파이널' 이벤트를 오는 12월 31일까지 실시한다. /미래에셋증권 제공

증권 마감시황

코스피, 닷새 연속 상승세… 2020선 안착

외국인, 나흘동안 순매수

코스피가 5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2020선에 올라섰다.

12일 코스피지수는 전일 대비 2.10포인트(0.1%) 오른 2021.63포인트에 장을 마쳤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228억원, 967억원 순매수해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개인 홀로 2679억원 매도 우위를 보였다.

미국의 금리인상 지연 기대감이 지속되며 외국인은 이날까지 나흘 연속 순매수했다. 이에 기관 매수세가 더해지면서 장중 한때는 2030선을 넘기도 했지만 지수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실현 매물로 상승폭이 축소됐다.

업종별로는 증권업이 4.99%로 크게 올랐고 철강금속, 은행 등도 3%대 상승률을 보였다. 보험, 종이목재, 전기가스업 등은 강보합권을 형성했다. 반면 비금속광물(-1.24%), 음식료업(-1.23%), 의약품(-0.99%) 등은 하락했다.

시가총액 상위종목 중에서는 삼성전자(-0.79%), 현대차(-1.54%), 한국전력(-0.21%) 등 시총 1~3위가 나란히 하락했다. 삼성물산(0.32%), 삼성생명(0.49%) 등이 소폭 올랐고 신한지주가 3.03% 크게 상승했다.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2.01포인트(0.3%) 내린 672.96으로 마감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32억원, 663억원어치를 순매도해 지수 하락을 부추겼다. 개인은 684억원 순매수했다.

업종별로는 화학(-2.44%), 종이목재(-1.96%), 기타제조(-1.92%), 비금속(-1.60%), 통신서비스(-1.32%) 등이 내렸고 방송서비스(2.18%), 통신방송서비스(1.39%), 금속(1.04%) 등은 상승했다.

시총 상위종목은 혼조세였다. 컴투스(-2.44%), 코미팜(-2.09%) 등이 낙폭이 컸고 셀트리온, 동서는 1%대 하락률을 보였다. 반면 CJ E&M(3.95%), 웹젠(4.48%) 등이 크게 올랐고 메디톡스, 파라다이스, 로엔 등은 1%대 상승했다.

한편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5.50원(1.34%) 급락한 1143.50원에 마감했다. /김보배 기자


FashionN
매주 목요일 밤 9시
깐깐한 그녀들의 리얼검증 프로젝트
follow me 6
더 강력해진
그녀들이 온다!
지나 / 아이비 / 황승언
t.cast
E channel
SCREEN
DRAMAcube
FashionN
CINEf
CHAMP
FOX
FOX life

5일장 방문·셔틀버스 운영… 주민 삶 파고든 분양 마케팅

건설사, 지역 밀착홍보 강화
체험행사·사업설명회 운영
거리미화·안전지킴이 눈길

10월 분양 중 지역 밀착 마케팅 진행 단지

밀착 마케팅	위치	단지명	전용면적(㎡)	총 가구수(일반분양)
5일장·마트 방문, 휴먼배너 등	충북혁신도시	건영아모리움 양우내안애	84	842
5일장 방문	강원도 춘천시	춘천 일성트루엘 더퍼스트	59~140	1,123(532)
현장홍보관 운영, 설명회 진행	서울 동대문구	래미안 답십리 미드카운티	59~123	1,009(580)
현장홍보관 운영	서울 성북구	래미안 길음 센터피스	59~109	2,352(336)
현장전망대 셔틀버스 운영	경기 용인시	e편한세상 용인 한숲시티	44~103	6,800
길거리 미화 활동	경기 남양주시	별내 효성해링턴 코트	84	307
오픈시기 셔틀버스 운영	인천 가정지구	가정 호반베르디움 더센트럴	73~84	980

가을 분양 성수기를 맞아 건설사들이 '지역 밀착형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

단순한 경품행사 위주 마케팅에서 벗어나 휴먼배너(사람이 배너를 지고 홍보하는 것), 사업설명회, 셔틀버스 운행 등을 통해 지역주민이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체험행사나 정보제공 등을 제공하고 있다.

삼성물산이 10월 동대문구 전농·답십리뉴타운에 분양예정인 '래미안 답십리 미드카운티'에서는 사업지인근인 지하철 5호선 답십리역 1번 출구근처에 현장홍보관 '웰컴라운지'를 운영 중이다.

평일 바쁜 직장인을 위해 주말마다 설명회를 열며 지역주민이 자주 모이는 지하철 역 주변에 홍보부스를 마련해서 지역민 대상 홍보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지역민이 모이는 곳을 집중 공략하는 전략도 펼친다.

대림산업은 이달 용인시 처인구 일대에서 신도시급 대단지 'e편한세상 용인 한숲시티'를 공급에 앞서 사업부지 내 현장 전망대를 오픈하고 사업지를 직접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 중이다.

동탄(화성 병점동 212-1번지)과 용인시청, 오산 이마트, 기흥역 8번 출구, 수원역 4번출구 등 현장 인근 지역을 오가는 셔틀버스를 운영 중이다. 셔틀버스는 주중 2시간, 주말 1시간 간격으로 운영한다.

대림산업은 이외에도 'e편한세상 양주신도시'에서는 의정부역과 양주 홍보관, 현장 등 3곳을 모두 방문해 스탬프를 받은 고객이 응모권을 지참하고 견본주택을 방문하면 고급 매직 텀블러를 증정하는 이벤트도 실시하고 있다.

수요자의 편의와 지역을 위한 마케팅도 있다.

건영과 양우건설이 이달 충북혁신도시 C-2블록에 분양예정인 '건영아모리움 양우내안애'는 지역 내 실수요자가 몰리는 5일장과 인근의 마트 등을 방문해 마케팅을 펼치고 휴먼배너를 진행 중이다. 또한 충북혁신도시 내 공공기관과 산업단지에서도 방문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일성건설도 같은 달 강원도 춘천시 후평동 67-3번지 일대의 후평동 주공2단지를 재건축하는 '춘천 일성트루엘 더퍼스트' 사업지 인근지역 외에 지역민이 몰리는 남춘천역 인근 5일장과 신북읍 샘밭장터 등에서 분양 마케팅을 하고 있다.

효성과 진흥기업은 이달 '별내 효성해링턴 코트' 분양을 앞두고 인근 별내역과 로데오거리 일대 길거리 청소를 하며 거리 미화활동(클린캠페인)을 펼쳤다.

또한 사업지 공사차량으로부터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있도록 인근의 별가람초와 별가람중 일대 안전지킴이도 자원해 활동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경쟁력을 갖춘 단지가 쏟아지면서 건설사들이 전단지 등 광고물보다 고객의 기억에 남을 수 있는 행사나 직접 참여·소통을 유도하는 지역 밀착형 마케팅을 적극 펼치고 있다"며 "지역 밀착형 마케팅이 홍보효과가 더 높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상길 기자 sweatsk@metroseoul.co.kr


왼쪽부터 지성현 부장, 서태석 과장, 문병욱 대리. /현대건설 제공

현대건설 연구원 4명 '세계 인명사전'에

준설매립 등 연구 성과
'마르퀴스 후즈 후' 등재

현대건설(대표 정수현)은 연구개발본부 소속 직원 4명이 기술연구 성과로 세계적 인명사전인 '마르퀴스 후즈 후'에 등재된다고 12일 밝혔다.

대상은 연구개발본부 지성현 부장과 김영오 부장, 서태석 과장, 문병욱 대리다.

지성현 부장은 현재 준설매립·연약지반 분야, 김영오 부장은 미생물을 이용한 폐수 처리 방식에 전문 지식이 있다. 서태석 과장은 콘크리트 분야, 문병욱 대리는 바람·지진 등에 대한 건축물의 구조 안전 전문가다.

한편 서태석 과장과 문병욱 대리는 영국의 국제인명센터(IBC)에도 등재돼 세계 3대 인명사전 중 2곳에 동시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박상길 기자

GS건설, 싱가포르 최대 종합병원 '응텡퐁' 준공

2012년 6000억 규모 단독 수주
1100개 병상 규모 3개 동 구성


응텡퐁 종합병원 전경. /GS건설 제공

GS건설(대표 임병용)이 싱가포르에서 준공한 '응텡퐁 종합병원'이 현지에서 준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GS건설은 최근 리센룽 싱가포르 총리를 비롯한 정부 주요 인사, 응텡퐁 종합병원 관계자와 임병용 GS건설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응텡퐁 종합병원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응텡퐁 종합병원 프로젝트는 2012년 5월 GS건설이 약 6000억원에 단독으로 수주한 프로젝트다. 연면적 23만7190㎡, 1100개 병상 규모로 지하 2층~지상 최고 16층 규모의 병원 건물 3개 동으로 구성돼 있다. 단일공사로는 싱가포르 최대 규모다. /박상길 기자

서울 상위 20% 아파트 평균가, 3년 만에 10억 재돌파

9월 평균가 10억 608만원
지난해보다 6.2% 올라



서울지역 상위 20%에 드는 아파트의 평균가격이 10억원을 넘어섰다. 2012년 5월(10억184만원) 이후 3년 4개월 만에 처음이다.

12일 KB국민은행(행장 윤종규)의 월간 KB주택가격동향을 보면 9월 서울 상위 20%에 해당하는 5분위 아파트의 평균가격은 10억608만원을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를 가격 순으로 줄을 세웠을 때 상위 20%의 평균가격이 10억원을 넘었다는 얘기다.

1년 전 9억4715만원보다 6.2%, 2년 전 8억9278만원에 비해서는 12.7% 올랐다.

지난해 부동산 경기가 살아난 영향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소형 아파트에서 본격화된 가격 오름세가 중대형에서도 서서히 나타난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08년 말 이후 흐름을 살펴보면 2011년 6월에 10억6158만원으로 고점을 찍고 하락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1월 8억9138만원을 바닥으로 반등했다. 지난 1년 동안 서울지역 소형아파트 매매가격은 6.2% 올랐고 중형은 4.4%, 중대형은 2.5%, 대형은 1.6% 상승했다.

서울지역 4분위 평균가격(5억9684만원)은 전년 동기 대비 5.0% 올랐다. 3분위(4억5217만원)와 2분위(3억5016만원)는 7.1%, 1분위(2억4524만원)는 7.4% 각각 올랐다. /박상길 기자

대한건설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설치
발주기관 관행 발굴·개선

대한건설협회(회장 최삼규)는 12일 '건설공사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발주기관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건설공사 불공정 행위 신고센터는 지난달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건설공사 발주자 불공정 관행 개선 방안'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마련됐다.

협회는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발주자의 불공정 관행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할 계획이다.

건설공사에서 발주자의 불공정행위 사실을 알고있는 사람은 건설업자뿐 아니라 현장 관련자, 일반인 등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신고할 경우에는 신고내용의 정확한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급물살타는 롯데家 사태

광윤사 주총 14일, 첫 공판은 28일

<롯데홀딩스의 최대주주>

신격호 법무법인 '양헌', 신동빈 '김앤장' 선임
신동주, 주총서 신 회장 해임안 상정 추진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대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격호(94)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신동주(62) SDJ코퍼레이션 대표(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가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과 롯데홀딩스 이사회 임원들을 상대로 낸 롯데가(家) 소송전이 28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조용현)는 28일 오전 10시 30분 신 총괄회장과 신 대표가 롯데쇼핑을 상대로 낸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소송이 열린다고 12일 밝혔다.

신 대표가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은 아직 기일이 잡히지 않았다.

신 총괄회장과 신 대표 측 변호에는 법무법인 양헌과 두우가 나섰다. 가처분 소송에는 양헌의 강경국(46·29기), 신민(44·30기), 손익곤(32·42기) 변호사가 변론을 펼친다. 손해배상 소송에는 두우의 대표 변호사인 조문현(60·9기) 변호사와 오종윤(54·19기) 변호사 등이 선임됐다.

신 회장 측 변호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이혜광(56·사법연수원 14기), 안정호(47·21기) 변호사가 맡았다. 이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수석부장판사를 지냈고, 안 변호사는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쳤다.

가처분 사건은 통상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고 결정을 내려 심문은 이날 오전 중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SDJ코퍼레이션은 12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롯데홀딩스의 최대주주인 광윤사의 주주총회를 오는 14일 오전 9시30분께 일본 광윤사 담당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광윤사 주주총회에서는 2가지 안건을 상정·심사한다.

우선 상정될 안건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광윤사 이사직 해임의 건이다. 이후 신동빈 회장을 대신할 새로운 이사 선임을 할 예정이다. 이사직 해임과 신규 이사 선임은 광윤사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가진 주주의 과반수 출석, 출석한 주주의 과반수 찬성을 얻으면 통과된다.

주주총회가 끝나면 광윤사 이사회도 개최될 예정이다.

이사회에서는 광윤사 대표 이사 선임의 건이 다뤄질 예정이다. 아울러 신격호 총괄 회장의 광윤사 주식 소유 지분 1주를 신동주 회장에게 매각하는 거래에 대한 승인이 이뤄질 계획이다.

신 회장은 신 대표의 소송과 관련해 12일 오전 인천 중구 운서동 롯데면세점 제2통합물류센터에서 열린 '상생 2020' 선포식에 참석해 "롯데의 경영투명성 제고와 기업구조 개선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라고 밝혔다.

롯데그룹도 이날 광윤사 주총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고 "광윤사는 일본 롯데홀딩스의 지분을 일부 보유하고 있을 뿐이며, 광윤사에서의 해임 결정이 롯데의 경영권에는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광윤사는 보유 지분에 따라 롯데홀딩스에 28.1%의 영향력만을 갖고 있다"며 "이미 롯데홀딩스는 지난 8월17일 이러한 지분구조가 반영된 주주총회를 열어 신동빈 회장의 경영권을 확인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길 기자 sweatsk@metroseoul.co.kr



농협유통, 햇생강 할인 판매 12일 서울 서초구 농협하나로클럽 양재점에서 모델들이 감기예방에 좋은 햇생강을 선보이고 있다. 농협유통 소속 하나로클럽·마트에서는 18일까지 햇생강을 36% 할인된 가격인 100g당 760원에 판매한다. /농협유통 제공

CJ온마트 "역직구族 노린다"

중국어 사이트 개설

CJ제일제당(대표 김철하)의 식품 전문 온라인 쇼핑몰인 CJ온마트가 중국어 사이트 'CJ온마트 차이나'를 개설했다고 12일 밝혔다.

CJ온마트 차이나는 중국 역직구족을 겨냥한 사이트로 현지 소비자의 취향을 고려해 중국인이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이는 뷰티, 피부건강 관련 제품을 전면에 내세웠다. 한국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이 선호하는 먹는 화장품 '이너비'를 비롯해 'BYO피부유산균 CJLP133', 다이어트 브랜드 '디팻' 등을 중심으로 총 250여 종의 CJ제일제당 상품을 취급한다.

CJ온마트 차이나는 사이트 개설 시점부터 운영 방식까지 중국 소비자의 성향을 고려한 맞춤형 전략을 택했다. '완전한 아름다움'을 뜻하는 한자성어 '십전십미(十全十美)'를 연상할 수 있도록 10일을 공식 개설일로 정하고, 십전십미의 열 십(十)자를 중국어 발음이 같은 먹을 식(食)으로 바꿔 '식전식미(食全食美)'라는 표어를 사이트 전면에 강조했다.

이 외에도 중국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알리페이를 비롯한 간편 결제 방식도 도입하고 중국인이 즐겨 이용하는 PC메신저 프로그램인 QQ메신저를 이용한 1:1 고객상담도 준비 중이다.

CJ제일제당은 내년 중으로 냉동식품을 비롯한 다양한 제품도 추가해 중국내 식품한류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내년에는 중국 현지 물류기반도 추가로 확보해 배송 기간도 5일 이내로 단축할 예정이다.

최승은 CJ제일제당 뉴채널 e-Biz팀 팀장은 "CJ온마트 차이나 개설은 중국 소비자가 CJ제일제당 제품을 보다 편하게 역직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식품 한류를 주도하는 전문 쇼핑몰로 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은미 기자 21cindiun@

롯데그룹, 제2롯데사태에 노사갈등까지…

롯데마트 노조,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고소

"마트업계 임금 최하위 성과금도 차등 지급해"



롯데마트 민주노총 노동조합은 12일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 앞에서 출범식과 함께 롯데마트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고소고발 기자회견을 가졌다. /롯데마트 민주노총 노동조합 제공

롯데그룹(회장 신동빈)이 제2롯데사태에 설상가상(雪上加霜)으로 노사 갈등까지 겪게 됐다.

롯데마트(대표 김종인) 민주노총 노동조합(위원장 김영주·이하 노조)은 12일 오전 11시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 앞에서 출범식을 갖고 사측의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고소고발 기자회견도 열었다.

롯데마트 민주노총 노조는 기존에 있던 한국노총 노조에 이은 두 번째 복수노조의 설립이다. 이날 노조 출범식에는 홈플러스 노조 김기완 위원장, 이마트 노조 전수찬 위원장 등도 참석했다.

노조 측은 "롯데마트 노동자들의 실상은 최악이다. 마트 업계 최고 시급을 자랑하지만 임금 총액은 최하위이며 인사평가에 따라 성과금도 차등 지급하고 있다"며 "직원들이 매일매일 30~40분의 추가 근무를 하는데도 연장근로수당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해 지급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롯데마트 노조의 반발로 인해 롯데그룹이 안게 될 부담은 더욱 가중됐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시기가 좋지 않다. 전 직원이 사기 진작을 위해 마음을 모아야 하는 시기에 회사를 더욱 어렵게 하는 것이 과연 롯데에 소속해 있는 직원이 할 일인가 싶다"며 하소연했다.

롯데마트는 노조의 설립은 보장한다면서도 연장근로수당 미지급과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반박했다. /김성현 기자 minus@

흰우유 대신 초코우유 마신다

흰우유(백색시유) 시장이 정체하는 반면 초코·딸기우유 등 가공유 매출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펴낸 '가공식품 마켓리포트 우유편'에 따르면 백색시유가 전체 우유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70.4%, 지난해 68.7%, 올해 상반기 66.6%로 줄었다.

백색시유 매출액은 지난 2013년 1조3520억원에서 2014년 1조3354억원으로 1.2% 감소했다. 올해 상반기(6370억원) 매출액도 지난해 상반기(6706억원)보다 5% 줄었다.

반면 초코·커피·딸기 우유 매출 규모는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초코우유 매출 비중이 최근 3년간 6.6%→ 7.8%→ 11%로 상승해 올해 상반기 처음으로 10%를 넘었다. 초코우유 매출액은 2013년 1276억원에서 2014년 1524억원으로, 2014년 상반기 719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1049억원으로 늘었다.

기존 초코우유보다 초콜릿 함량을 늘린 제품이 나오면서 어린이뿐 아니라 어른들도 디저트로 초코우유를 구매하는 수요가 부쩍 많아지기 때문으로 aT는 분석했다.

/정은미 기자



세계 첫 싱글몰트 위스키 '더 오리지널' 12일 윌리엄그랜트앤선즈코리아(대표 김일주)가 신사동 루이스클럽에서 '글렌피딕 더 오리지널(Glenfiddich The Original)' 출시 행사를 가졌다. 1963년 전 세계 최초 싱글몰트 풍미를 재현한 글렌피딕 더 오리지널은 국내에 1963병 한정 출시되며 12월12일까지 두 달간 '글렌피딕 더 오리지널 바'에서만 판매될 예정이다. /윌리엄그랜트앤선즈코리아

감칠맛 한 방울… 액상조미료 전쟁

샘표, 2010년 '연두'로 개척
3년 내 500억 규모 시장 전망
CJ·대상, 분말 노하우로 추격

가파르게 성장하는 국내 액상 조미료 시장을 두고 식품업체 간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12일 시장조사기관 링크아즈텍에 따르면 분말 조미료 시장은 지난 2012년 1371억원에서 2013년 1200억원, 2014년 1160억원으로 연평균 5%씩 감소하고 있다.

반면 액상 조미료 시장은 2012년 14억원, 2013년 78억 원, 2014년 120억원으로 해마다 50% 이상 신장하고 있다. 올해는 70% 이상 성장하고 향후 3년 내 500억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성장세에 CJ제일제당과 대상이 분말 조미료 제품에서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시장에 뛰어들고 그 동안 시장을 키워온 샘표도 시장 수성에 나서면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지난 2010년 '연두'로 국내 액상 조미료 시장을 개척한 샘표는 이날 100% 국산콩을 사용한 요리에센스 '연두 우리콩'을 선보이고, 1위 자리 지키기에 나섰다. 연두 우리콩은 100% 국산 콩과 함께 표고버섯, 양파, 무 등 100% 국산 채소를 우려낸 프리미엄 제품이다.

샘표 관계자는 "연두가 2012년 5월 리뉴얼 출시 이후 지난 6월까지 누적판매량이 1000만 병 돌파할 정도로 인기를 끈다"며 "'연두 우리콩'은 국산 원재료를 원하는 소비자들의 니즈를 반영한 제품으로 올해 연두로만 200억원의 매출을 기록하겠다"고 말했다.



왼쪽부터 샘표 '연두 우리콩', 대상 청정원 '요리에 한수', CJ제일제당 '다시다 요리수 치킨스톡'.

대상 청정원은 지난 1월 '요리에 한수'를 선보였다. 이 제품은 순창 브랜드 전통의 양조간장 발효 기술과 조미 노하우를 바탕으로 만든 액상 자연조미료다. 선별한 종균을 인위적으로 단시간에 발효시키지 않고 장시간 자연 숙성시키는 기술을 2년간 연구해 제품에 적용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요리에 한수는 출시 3개월 만에 누계 매출 10억원을 돌파했다. 최근에는 소비자 요청에 따라 605ml 대용량 제품을 추가로 출시했다.

대상 관계자는 "요리에 한수는 대상의 발효기술과 조미료에 대한 노하우를 모두 담아 만든 제품"이라며 "올해는 안정적 시장 기반 확보하고 향후 3년 내 액상조미료 시장 1위로 올라서겠다"고 말했다.

CJ제일제당도 지난 5월 '다시다 요리수'를 내놓은 데 이어 최근에 '다시다 요리수 치킨스톡'을 연달아 내놓으며 액상 조미료 라인을 강화하고 있다.

다시다 요리수는 다시마, 표고버섯, 마늘, 대파 등 야채를 우려내 분말 다시다의 진한 맛을 액상으로 가공한 제품이다. 다시다 요리수 치킨스톡은 요리에 가장 많이 쓰이는 닭 육수를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제품이다.

CJ제일제당은 이들 제품에 대해 요리 프로그램을 활용한 방송 간접광고 노출(PPL)과 온라인 이벤트, 체험단 운영 등 다양한 마케팅을 통해 2018년까지 500억원대 대형 브랜드로 키울 계획이다.

/정은미 기자 21cindiun@metroseoul.co.kr

국순당 '생막걸리' 대만 코스트코 입점

국순당(대표 배중호)의 막걸리 제품이 창고형 마트 코스트코의 해외 지점에 입점했다.

국순당은 '생막걸리'가 대만 타이페이에 위치한 신죽(新竹)과 석지(汐止) 2개 점포에서 지난 2일부터 판매를 시작했다고 12일 밝혔다.

국순당은 전세계적으로 까다로운 코스트코 입점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준비를 해왔으며 8월 생산공장인 횡성공장 현지 방문 심사까지 거쳐 입점에 성공했다.

국순당은 향후 판매처를 대만지역 코스트코 12개 점포로 확대하고 입점 성공경험을 바탕으로 차후 인접국 코스트코까지 입점을 확대할 전략이다.

신라면세점, 싱가포르 공항에 '듀플렉스' 오픈

신라면세점이 싱가포르 창이국제공항 면세점에 이색 체험 매장 '듀플렉스'를 열었다고 12일 밝혔다.

듀플렉스 매장에서는 화장품 브랜드 뷰티 컨설턴트들이 화장품과 향수 관련 상담을 해준다. 또 고급 화장품을 직접 체험하고 마사지와 스파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창이국제공항 제3터미널 중앙에 374㎡ 규모로 조성됐으며 1층은 화장품 판매 매장으로 2층은 체험 공간으로 구성됐다.

매일유업, 오리지널 제품도 지방함량 표기

매일유업(대표 김선희)은 기존 '매일우유 2%, 1%, 0% 저지방라인'의 지방함량 표기를 '매일우유 오리지널' 제품에도 도입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매일우유 오리지널의 지방함량 표기는 제품 패키지 전면에 지방함량인 3.6% 수치를 표시하는 것으로 기존 매일우유 저지방 제품에만 도입됐던 지방함량 표기를 일반 우유까지 확대해 소비자에게 더욱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매일유업 제품에 대한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매일유업 고객상담센터(1588-1539)로 문의 하면 된다.

LG생활건강, 업무 기본준수 가이드북 발간

LG생활건강(대표 차석용)은 임직원이 회사생활과 업무진행에 있어 지켜야 할 기본 사항을 담은 가이드북 '한 손에 잡히는 기본 준수 길라잡이'를 발간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가이드북은 임직원이 지켜야 할 필수 규정 사항들과 컴플라이언스(compliance:준법감시) 리스크 등의 주의 사항 등을 조직문화, 직원윤리, 법규준수 등 3가지 주제로 통합 정리했다. 세부 사례를 포함해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구성했다.

특히 카르텔(담합) 예방, 저작권 침해, 계약검토 등 주요 법규에 대해 정확히 숙지하고 업무 수행 시 실수로 법규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구체적 상황과 예시를 통해 설명했다.

KGC인삼공사, 신임 대표에 박정욱 부사장 선임

마케팅 전략 전문가

KGC인삼공사는 박정욱(52·사진) 부사장을 신임 대표이사 사장으로 선임했다고 12일 밝혔다.



박 사장은 1989년 한국담배인삼공사(현 KT&G) 입사 이후 KT&G 마케팅 본부장, KGC인삼공사 국내사업부문장(부사장)을 거친 마케팅 전략 전문가다.

특히 박정욱 사장은 소비자 트렌드를 정확히 읽어 고객의 기호에 부합하는 제품을 적기에 출시해 홍삼시장 매출 상승을 이끈 바 있다.

박정욱 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KGC인삼공사가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책임지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특히 JET로 대변되는 Joy(즐거운 회사), Expert(프로정신에 입각한 고품질 경영), Together(상생기반의 함께하는 문화)를 3대 경영 아젠다로 설정해 KGC의 지속성장과 발전을 견인하는 강력한 성장엔진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정은미 기자

360° 파노라마로 생생한 현장체험

조니워커하우스
구글 스트리트 뷰 서비스

디아지오코리아(대표 조길수)의 위스키 복합 문화공간 조니워커하우스 서울은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한 조니워커하우스를 대상으로 구글 스트리트 뷰 공인 프로그램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구글 스트리트 뷰 공인 프로그램 서비스는 구글 맵 기술을 활용한 무료 가상 투어 서비스다.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 등 다양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 누구나 손쉽게 이용 가능하다. 360도의 고화질 파노라마로 촬영된 조니워커하우스 내부를 둘러보면서 실제로 조니워커하우스를 누비고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킬 만큼 생생한 현장감을 느낄 수 있다.



/디아지오코리아 제공

디아지오는 지난 2월에 구글과 합작해 디아지오의 '기네스 스토어하우스' 등 스코틀랜드 내 유명 스카치 위스키 증류소 4곳의 내부를 둘러볼 수 있는 구글 스트리트 뷰 공인 프로그램 서비스를 선보인바 있다.

대한적십자사 '2015 적십자 바자'

16국 대사부인 나서 "나눔&사랑"

오늘 코엑스서 오전 10시부터 의류·화장품·특산물 등 판매 수익금 전액 사회취약층 지원


지난해 열린 적십자 바자에 방문한 관람객들이 외국 전통 장신구를 구경하고 있다. /대한적십자사

대한적십자사는 13일 오전 10시~오후 4시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이웃 사랑 실천을 위한 '2015 적십자 바자'를 연다.

바자에는 정부 부처 국무위원과 차관 부인, 금융기관장과 정부투자기관장 부인과 기업들의 사회공헌으로 90여 개 판매 부스가 설치된다.

판매 물품은 국내 유명 브랜드 의류와 화장품, 등산용품, 골프용품, 농산물·수산물, 지역특산품, 각종 생필품 등이다.

16개국 주한 외교 대사 부인들도 각 나라의 전통 민예품과 전통음식 등을 판매하며 나눔에 동참할 예정이다.

수익금 전액은 조손가정, 홀몸 어르신, 다문화 가족 등 사회 취약 계층을 돕는 데 사용된다.

/유선준 기자 rsunjun@metroseoul.co.kr


지난 9일 정창수 한국관광공사 사장과 공사 임직원, 관광경찰 등이 동대문 쇼핑지역을 방문하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친절 문화 확산을 위한 가두캠페인을 전개했다. /한국관광공사

"한국이 웃으면 세계가 웃어요!"

한국관광公 'K스마일 캠페인' 동대문서 친절문화 확산 운동

한국관광공사는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찾고 있는 동대문 쇼핑몰을 찾아 쇼핑업계와 관광업계, 일반인을 대상으로 친절문화 확산을 위한 'K스마일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정창수 한국관광공사 사장과 공사 임직원, 관광경찰 등은 동대문 쇼핑지역을 방문하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친절 문화 확산을 위한 가두캠페인을 전개하는 한편 동대문 쇼핑몰에 소재한 상점들을 방문해 관광객 환대·친절서비스 실천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공사는 관광불편을 최소화하고 관광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유선준 기자

눈과 입으로 즐기는 色다른 과즙탄산

롯데칠성음료
트로피카나 롱넥보틀 2종 출시

롯데칠성음료(대표 이재혁)가 독특한 패키지의 색(色)다른 과즙탄산음료 '트로피카나 스파클링 롱넥보틀(Long Neck Bottle)' 2종을 출시했다.

이 제품은 14년 연속 100% 주스 세계 1위 브랜드 '트로피카나'가 선보이는 프리미엄 과즙탄산음료다.

롯데칠성음료는 음료 하나를 선택할 때도 개성과 특별함을 추구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는 점에 착안해 컬러 마케팅의 일환으로 지난해 말 선보인 '마운틴 듀 롱넥보틀'에 이어 스테디셀러 제품인 트로피카나 스파클링에도 변화를 줬다.



기존 355㎖ 캔으로 판매중인 트로피카나 스파클링 사과, 오렌지, 포도, 복숭아, 망고 총 5종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사과와 새로운 맛인 자몽을 더해 롱넥보틀로 선보였다.

톡톡 튀는 탄산에 과즙도 10% 나 들어있어 과일 본연의 달콤함을 입안 가득 즐길 수 있는 점도 특징이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색다른 과즙탄산음료인 트로피카나 스파클링 롱넥보틀로 청량감과 달콤함을 눈과 입으로 함께 즐겨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은미 기자 21cindiun@

탱탱하고 빛나는 피부… 한방으로 안티에이징

미샤
프리미엄 한방 '초공진' 론칭

에이블씨엔씨(대표 서영필)의 브랜드숍 미샤는 프리미엄 한방 라인 '미사(美思) 초(超)공진'을 론칭했다고 12일 밝혔다.

미사 초(超)공진은 미샤만의 '공진비책단' 처방으로 탄탄한 탄력과 자연스러운 윤기를 가진 젊은 피부를 되찾아주는 한방 안티에이징 라인이다.

사용하는 단계별로 수액, 에센스, 유액, 크림, 영안고 등 5가지 제품으로 선보였다. 수액은 피부 변화를 위한 첫 단계로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주며 에센스는 매끈하고 탄탄한 피부를 만들어준다. 유액은 피부에 촉촉하고 깊은 보습효과를, 크림은 풍부한 영양을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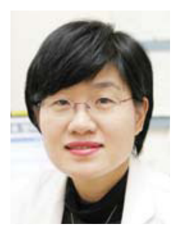


회사 측은 미사 초공진 라인의 품격에 어울리도록 봉황과 모란이 새겨진 패키지를 특별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에이블씨엔씨 정필회 상품기획팀장은 "미사 초공진은 갑작스러운 피부 노화로 고민하는 여성들을 위해 진귀한 한방성분들만 엄선해 만들었다"고 말했다. /정은미 기자

발가락 관절 통증의 모든 것 밝힌다

이대목동병원 류마티스내과 '질환 올바로 알기' 건강강좌



이대목동병원 류마티스내과는 오는 22일 오후 1시부터 2시 30분까지 병원 2층 대회의실에서 '발가락 관절 통증 올바로 알기'를 주제로 건강강좌를 개최한다.

이번 강좌는 대한류마티스학회가 환자와 일반인들에게 류마티스 질환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알리기 위해 6회째 진행하는 '골드링 캠페인'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번 건강강좌에서는 ▲류마티스 관절염(이지수 류마티스내과 교수) ▲통풍(김인제 류마티스내과 교수) ▲발 통증의 재활치료와 발 운동(한수정 재활의학과 교수) 등의 강연이 진행된다.

별도의 사전 접수없이 류마티스 질환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석할 수 있는 이번 강좌는 참석자 가운데 선착순 100명까지 발모양 냄비받침대, 칫솔 세트 등이 제공된다.

/유선준 기자

보해양조, 부라더 시리즈3탄 '복받은 부라더'

복분자 과즙 첨가 알코올 12도

보해양조(대표 임지선)가 복분자 과즙을 첨가한 소주 '복받은 부라더'(사진)를 12일 출시했다.

복받은 부라더는 잎새주 부라더, 부라더#소다를 잇는 부라더 시리즈의 세 번째 제품이다. 복받은 부라더는 보해 복분자주로 국내 주류시장에서 인정받은 보해양조의 제품력과 기술을 집약, 복분자의 맛과 빛깔을 최상으로 살려 알코올 도수 12도로 선보였다.



용량은 360㎖로 기존 소주와 동일하며 출고가는 962.9원이다.

쿠론 '스마트 월렛 클리패스' 라인 출시

코오롱인더스트리FnC(대표 박동문)의 잡화 브랜드 '쿠론'은 지갑 속 여러 개의 카드 중 하나의 카드만 인식하는 '스마트 월렛 클리패스' 라인을 12일 출시했다.

클리패스는 중요한 부분을 표시하다는 뜻의 '클립'과 통과하다는 뜻을 지닌 '패스'의 합성어다. 지갑 속 여러 개의 카드 중 지정해놓은 단 하나의 카드만을 인식해 대중교통 이용 시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star bag



리얼리티 프로 출연

걸그룹 **여자친구**가 MBC 뮤직의 리얼리티 프로그램 '어느 멋진 날'의 주인공으로 발탁됐다. 오늘 오전 필리핀 세부로 출국한다. 3박 4일 여행기를 통해 솔직하고 꾸밈없는 모습을 보여줄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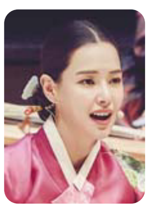
신곡 '노 메이크 업'



가수 **자이언티**가 신곡 '노 메이크 업'을 12일 공개했다. 꾸미지 않아도 예쁜 순수한 연인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노래다. 프로듀서 쿠쉬, 서원진이 작업에 참여했다.

다음달 6일부터 8일까지 콘서트도 개최한다.

가야금 축제 무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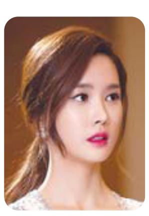
배우 **이하늬**가 지난 9일 열린 제3회 의정부 국제 가야금 축제 무대에 올랐다. 어머니 문재숙 교수, 언니 이슬기, 동생 이권형과 함께 가야금 병창과 꽹과리 연주 등을 선보였다.

언니와 한솥밥



배우 **김옥빈**의 친동생 김고운이 김옥빈이 소속된 윌엔터테인먼트와 전속 계약을 체결했다. 소속사 측은 "김고운은 어린 시절부터 연기 기본기를 탄탄하게 다져 온 배우"라며 "앞으로 더 성장할 것"이라고 전했다.

韓中 합작 드라마



배우 **이다해**가 한중 합작 드라마 '세기의 커플'의 여주인공으로 낙점됐다. 계약 결혼을 하게 된 톱스타들이 진정한 사랑을 찾아간다는 내용의 로맨틱 코미디 드라마다. 이달 중순 촬영에 들어간다.

날선 카리스마, 15kg 감량의 결과물



드라마 '화정' 김재원

최근 종영한 드라마 '화정'은 기존의 이미지와 틀을 깨려는 배우 김재원(35)의 노력이 돋보였던 작품이다. 드라마 '로망스', '내 마음이 들리니' 등에서 주로 선하고 밝은 역할을 했던 김재원은 '화정'에서 권력 지향적인 야심가 인조 역할을 맡아 날선 카리스마로 새 면모를 보였다.

반정으로 왕위에 올라 백성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인조를 연기하기 위해 그는 극 중반부에 투입됐음에도 무려 15kg를 감량할 정도로 몰입했다. 20대 능양군부터 왕이 되고 54세에 죽음을 맞기까지, 인조의 나이와 지위에 따른 목소리의 변화까지 소화하려 극에 몰입했다.

"인조를 따로 분리해서 접근했더니 오히려 혼선이 왔어요. 그래서 내 자체가 인조라고 생각했죠. 역사에 근거한 실존 인물이니 그에 가까운 행동과 목소리를 표현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감량을 한 것도 그의 모습을 추론해 내린 결론이었고요."

김재원이 해석한 인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모습과는 다르다. 청에서 돌아온 친자식인 소현세자를 살해했다고 추정되는 질투많은 인물이지만 그를 가엾게 여겼다.

"인조가 가진 악한 모습을 다각화해서 판단했어요. 역사의 기록을 떠나서 제가 연구하면서 봤던 면은 선과 악으로 구분할 수 없었어요. 현대 남성상의 모습과도 비슷한 것 같았어요. 늘 열심히 했지만 결과가 좋지 않았죠. 열심히 일해도 잔소리만 듣고, 주변에 사랑해주는 사람 없는, 불쌍한 사람이고요."

촬영을 마치면 반나절은 쓰러져 있을 정도로 김재원은 극에 집중했다. 지난 2006년 '황진이' 이후 생애 두 번째 사극이기에 모든 것을 쏟아붓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화정'은 아쉬운 성적표를 받았다. 하지만 그는 웃음을 잃지 않았다.

"후련하기보다는 최선을 다하려고 열심히 했기 때문에 후회는 없어요. 순간순간 더 잘 할 수도 있었다는 아쉬움이 없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저에게는 모든 것들이 다 좋은 추억이고 경험이 됐어요. 제 인생인데 잘 포장해야죠. (웃음) 모두 오늘의 나를 있게 만든 시간들이었으니까 예쁘고 멋있는 부분만 추리려고요."

그렇게 힘든 촬영을 마쳤으면서도 인터뷰 내내 미소를 띨 수 있는 건 긍정의 힘과 자신감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가족에게서 나온다. 2013년 결혼한 김재원의 가장 큰 보물은 '김도사'라는 별명을 가진 아들이다.

악한 모습 인조, 가엾게 여겨 자신 만의 해석으로 연기

나이·지위 따라 목소리 변화 최선 다했기에 후회는 없어 ”

"많이 컸어요. 정말 예쁘죠. 제가 TV에 나오면 반응도 합니다. (웃음) 강한 사랑을 주면 상대에게서 오는 사랑도 강하듯이 가족에게서 얻는 힘이 큰 것 같아요. 거기서 얻은 깨달음이 아무래도 연기를 할 때도 큰 도움이 돼죠. 이제 알맞게 (연기를) 내놓는 법을 알게 된 것 같아요. 된장찌개를 마냥 끓이기만 하지 않듯이, 작품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맞게 연기를 내놔야죠. 나에 대한 부족함을 잘 알고 있지만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욕은 먹지 않겠죠."

/하희철 기자 hhc@metroseoul.co.kr

사진/윌엔터테인먼트 제공

아이유, 1년 5개월 만에 신보 발표

23일 미니앨범 '첫 셔' 공개

가수 아이유가 마침내 컴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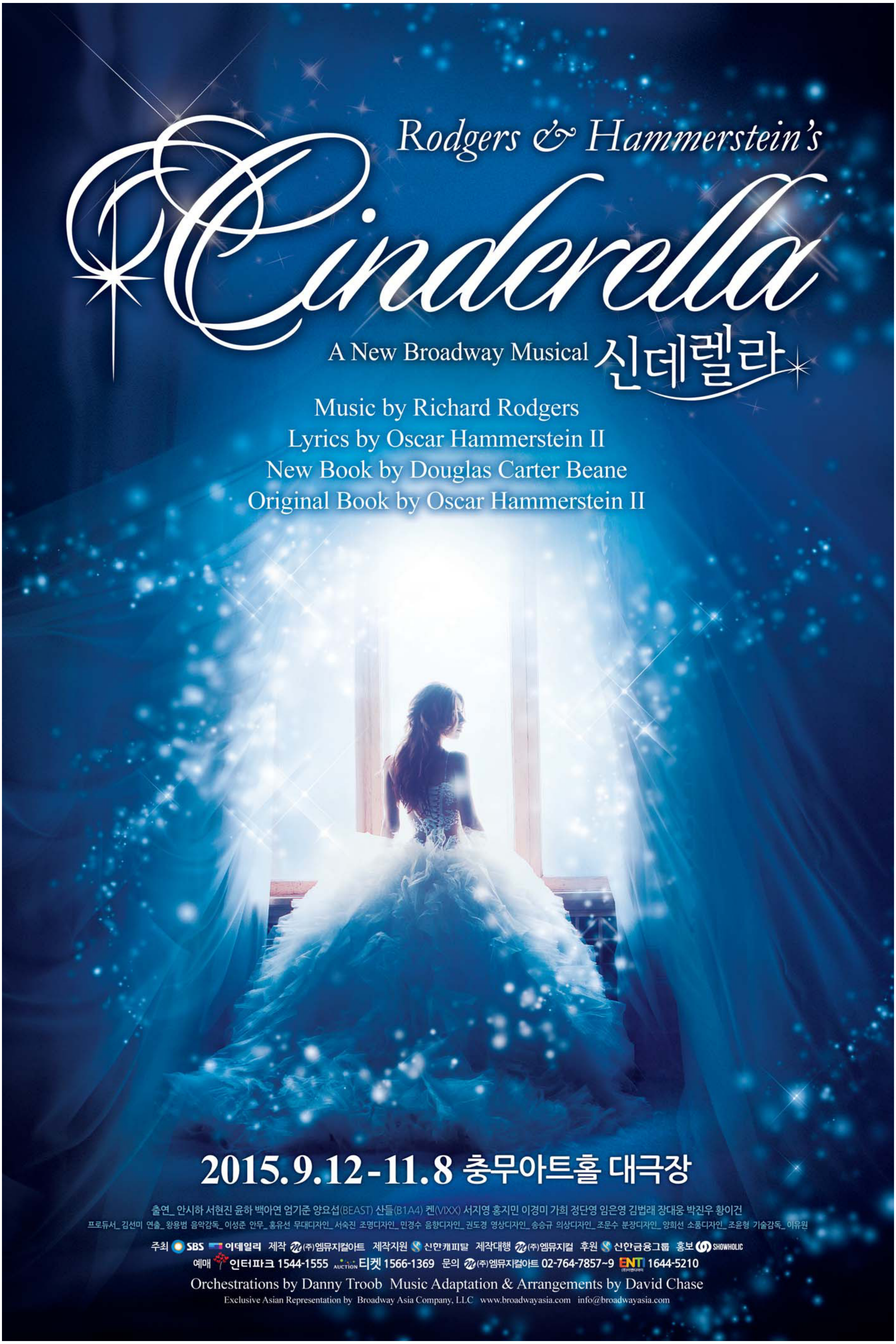
아이유는 오는 23일 자정 각종 음악 사이트를 통해 네 번째 미니앨범 '챗셔(CHAT-SHIRE)'를 발표한다.

이에 앞서 12일 자정 새 앨범 발매 소식과 함께 공식 페이스북·트위터·팬 카페·멜론 아티스트 채널 등을 통해 티저 이미지를 공개했다. 공개된 이미지 속에서 아이유는 보라색 리본에 감싸인 오드아이의 신비로운 모습으로 묘한 매력을 선보였다.

아이유의 이번 앨범은 지난해 발표한 스페셜 리메이크 앨범 '꽃갈피' 이후 1년 5개월 만의 신보다. 아이유는 전곡 작사·작곡에 참여했으며 앨범 프로듀싱도 맡았다. 23세가 된 아이유의 솔직한 이야기를 담은 음반으로 팬의 기대가 높다.

음반은 오는 27일 오프라인 매장에서 만날 수 있다. /장병호 기자




Rodgers & Hammerstein's
Cinderella
A New Broadway Musical 신데렐라
Music by Richard Rodgers
Lyrics by Oscar Hammerstein II
New Book by Douglas Carter Beane
Original Book by Oscar Hammerstein II
2015.9.12-11.8 충무아트홀 대극장
출연_ 안시하 서현진 윤하 백아연 엄기준 양요섭(BEAST) 산들(B1A4) 켄(VIXX) 서지영 홍지민 이경미 가희 정단영 임은영 김법래 장대웅 박진우 황이건
프로듀서_ 김선미 연출_ 왕용범 음악감독_ 이성준 안무_ 홍유선 무대디자인_ 서숙진 조명디자인_ 민경수 음향디자인_ 권도경 영상디자인_ 송승규 의상디자인_ 조문수 분장디자인_ 양희선 소품디자인_ 조윤형 기술감독_ 이유원
주최 SBS 이데일리 제작 (주)엠뮤지컬아트 제작지원 신한캐피탈 제작대행 (주)엠뮤지컬 후원 신한금융그룹 홍보 SHOWHOLIC
예매 인터파크 1544-1555 AUCTION 티켓 1566-1369 문의 (주)엠뮤지컬아트 02-764-7857~9 ENT 1644-5210
Orchestrations by Danny Troob Music Adaptation & Arrangements by David Chase
Exclusive Asian Representation by Broadway Asia Company, LLC www.broadwayasia.com info@broadwayasia.com

진실과 거짓에 대한 도발적 질문

film review

/장병호 기자 solanin@metroseoul.co.kr

■ 특종: 량첸살인기

정보 홍수 속 사라진 진실 현실 언론 풍자 블랙코미디





'특종:량첸살인기'(감독 노덕)는 어느 방송국 사회부 기자의 이야기를 그린다. 조정석이 연기하는 허무혁이다. 보도자료에는 '열혈 기자'라고 소개되고 있다. 하지만 허무혁은 사명감보다 생활인으로서 기자 일을 하는 평범한 직장인에 가깝다. 물론 그에게는 광고주가 얽힌 사건도 거침없이 취재하는 대범함이 있다. 그러나 그 대범함 뒤에는 "몰랐다"는 변명도 숨겨져 있다.

사건은 허무혁이 연쇄 살인사건에 얽힌 특종을 쫓게 되면서 시작된다. 휴직 처분에 항의하기 위한 방편으로 삼게 된 특종이다. 허무혁은 연쇄 살인범의 정체를 안다는 의문의 전화를 받고 몇 가지 단서를 찾아낸다. 그리고 특종을 잡았다는 확신을 갖게 된다. 그때까지도 허무혁은 알지 못한다. 그 믿음이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게 된다는 것을 말이다.

영화는 무척 도발적이다. 관객을 향해 진실과 거짓의 의미가 무엇인지 질문하기 때문이다. 진실과 거짓, 사실과 허구를 논하는 최전선에 놓여 있는 언론사를 무대로 삼은 것은 그런 이유에서다. 영화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더 이상 진실에 닿을 수 없는 현실을 살고 있지 않냐고 반문한다.

TV·인터넷·스마트폰 등을 통해 우리는 매일 수많은 정보를 접한다. 과거에 비하면 정보에 대한 접근은 수평적이 됐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무엇이 진실이고 거짓인지 구분할 수 없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은 하나다. 눈에 보이는 것이 사실이고 우리가 믿는 것이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영화의 웃음은 이런 현실에 대한 풍자에서 비롯된다. 자신의 특종이 오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허무혁이 취하는 행동, 그리고 이를 받아들이는 방송국 사람들의 태도가 그렇다. 물론 영화 속 언론사의 묘사는 다소 과장된 면이 없지 않다. 그럼에도 일정 부분은 지금 언론의 현실이라는 점에서 마냥 웃기에 씁쓸함이 남는다.

다만 영화를 보면서 한 가지 의문이 남는다. 세상은 왜 이렇게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기 힘든 곳이 됐는가. 도발적인 영화는 이 질문 앞에서 머뭇거린다. 언론사를 무대로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의 폐부를 날카롭게 파헤치지 못한다. 언론의 이야기로 출발한 영화는 예상에서 다소 빗나가는 지점에서 이야기를 마무리한다. 처음 제목이었던 '저널리스트'처럼 언론에 보다 집중해서 이야기를 파고들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15세 이상 관람가. 10월 22일 개봉.

TV 하이라이트

요리로 여심을 훔치다

◆ SBS '불타는 청춘'

오후 11시 15분



동해안 7번 국도 버스 여행 두 번째 이야기. 요리 프로그램을 진행할 정도로 뛰어난 실력을 가진 서태화가 저녁 요리에 나선다. 이미 지난회에서 화려한 점심 요리를 선사한 그에게 기대치가 높아진 상황이지만, 서태화는 개의치 않고 프라이팬 불쇼를 선보이며 한층 수준높은 요리 퍼포먼스를 펼친다. 광동식 광어찜, 돼지고기소스 홍게튀김 등의 레스토랑 못지 않은 요리로 모든 여심을 훔친다.

◆ tvN '집밥 백선생'

오후 9시 40분

냉장고 한 구석을 늘 차지하고 있는 건어물로 명품 요리를 만드는 레시피를 전수한다. 건어물로 만드는 다양한 밑반찬과 북엇국, 떡국 등의 요리쇼가 펼쳐진다.



◆ MBN '엄지의제왕'

오후11시

건강한 몸을 만드는 '5분 30초'의 비법이 공개된다. 혈관, 눈, 척추에 관한 국내 최고의 명의 3인방이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던 기적의 비밀을 밝힌다.



◆ tvN '현장토크쇼-택시'

오후 8시 40분

가을과 어울리는 두 남자, 지진희와 김성균이 택시에 오른다. 두 사람은 과거 어려웠던 무명 배우 시절부터 행복한 결혼생활까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한다.

/정리=하희철 기자 hhc@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13일(화)

KBS1	KBS2	MBC	SBS	JTBC	MBN	tvN	FOODTV
05:00 KBS 뉴스 05:10 내 고향 스페셜 06:00 KBS 뉴스광장 07:50 인간극장 08:25 아침마당 09:30 KBS 뉴스 10:00 중계방송 국회 대정부 질문	06:00 2TV 아침 1부 07:00 2TV 아침 2부 08:00 KBS 아침 뉴스타임 09:00 TV소설 별이 되어 빛나리 09:40 여유만만 10:40 지구촌 뉴스 11:00 발칙하게 고고 (재)	05:00 MBC 뉴스 05:10 MBC네트워크특선 어부의 만찬 06:00 MBC 뉴스투데이 1부 06:25 MBC 뉴스투데이 2부 07:50 이브의 사랑 08:30 생방송 오늘 아침 09:30 MBC 생활뉴스 09:45 기분 좋은 날 11:00 찾아라! 맛있는 TV 스페셜	05:00 SBS 5 뉴스 05:10 굿모닝 510-충전 힐링 라이프 06:00 모닝와이드 (1~3부) 08:30 어머님은 내 며느리 09:10 좋은아침 10:00 SBS 뉴스 10:30 SBS 생활경제 11:30 접속! 무비월드 스페셜	06:00 신인류 식품관 (재) 07:00 아웅다웅 동화나라 시즌2(재) 07:30 JTBC NEWS 아침 & 09:00 김제동의 톡투유 (재) 10:00 비정상회담 (재) 11:20 냉장고를 부탁해 (재)	05:50 나는 자연인이다 (재) 06:50 굿모닝 MBN 08:00 아침엔 매일경제 09:20 뉴스파이터 10:30 전국네트워크뉴스 10:40 현장르포 특종세상 (재) 11:50 고수의 비법 황금알 (재)	06:00 코미디 빅리그 꿀잼 에디션 (재) 06:30 삼시세끼 어촌편 (재) 08:10 응답하라 1994 (재) 09:40 울지 않는 새 10:30 문제적 남자 (재)	05:00 레시피 공작소 05:30 루이의 니하오 키친 06:00 힐링로드 맛과 멋 06:30 나를 바꾸는 30분 07:00 찾아라! 팔도 맛지도 07:30 식신로드 시즌2 (재) 08:30 테이스티 월드 09:00 씨네 라이프 10:00 세기의 기행 판소리의 맛과 멋 11:00 명물인생 11:30 Chopped Canada
12:00 KBS 뉴스 12 13:00 역사저널 그날 (재) 13: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재) 14:00 2015 전국 대학 농구 15:55 튼튼생활체조 (재) 16:00 오늘의 경제 16:10 다큐 공감 (재) 17:00 KBS 뉴스 5 17:20 시사진단	12:05 청춘FC 헝그리 일레븐 (재) 13:10 체인지업 도시탈출 (재) 14:00 KBS 뉴스타임 14:10 세상의 모든 다큐 (재) 15:05 후토스-잃어버린 숲 (재) 15:30 자동공부책상 위키 (재) 16:00 TV 유치원 16:30 이욱정 PD의 요리인류 키친 (재) 16:40 동물의 세계 17:00 VJ 특공대 (재)	12:00 MBC 정오뉴스 12:20 TV속의 TV 13:20 헬로키즈 아하! 동물탐험대 (재) 14:05 내꺼야 폴록 14:30 내 품에 라바와 친구들 15:00 MBC 뉴스 15:10 꼬마돌 도도 15:40 통일전망대 16:25 딱 너 같은 딸 (재) 17:00 MBC 이브닝 뉴스	12:00 SBS 12뉴스 12:50 육룡이 나르샤 (재) 14:00 네트워크 현장! 고향이 보인다 15:00 SBS 뉴스 15:10 산의날 특집다큐 숲의 미래를 묻다 16:00 꾸러기탐구생활 스페셜 16:30 내 마음의 크레파스 17:00 SBS 뉴스 퍼레이드 17:30 로봇 트레인	12:40 히든싱어 4(재) 14:35 JTBC 뉴스 현장 15:50 4시 사건 반장 17:10 5시 정치부 회의	13:00 기막힌 이야기 실제상황 (재) 14:10 기막힌 이야기 실제상황 (재) 15:30 뉴스 BIG 5 16:50 뉴스&이슈	12:00 삼시세끼 어촌편 시즌2 (재) 13:50 두번째 스무살 (재) 15:50 삼시세끼 어촌편 시즌2 (재)	12:30 오감도 (재) 13:30 스타 뉴스 14:30 한국의 맛 시즌2 15:00 세기의 기행 판소리의 맛과 멋 16:00 필로교수의 쿠킹콘서트 한우예찬 (재) 17:00 활력 충전 건강이 보인다 (재) 17:30 담소룡의 소림식탁
18:00 6시 내고향 18:50 4000회 특집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19:00 KBS 뉴스 7 19:30 이웃집 찰스 20:25 가족을 지켜라 21:00 KBS 뉴스 9 22:00 진정한 주민자치의 길 23:00 KBS 뉴스라인 23:40 국제공동제작 아시안 피치	18:00 글로벌 24 18:30 2TV 저녁 생생정보 1 19:50 축구 국가 대표팀 친선경기 22:00 발칙하게 고고 23:10 우리동네 예체능 24:35 스포츠 하이라이트	18:10 생방송 오늘 저녁 19:15 위대한 조강지처 19:55 MBC 뉴스데스크 20:55 딱 너 같은 딸 21:30 리얼스토리 눈 22:00 화려한 유혹 23:10 PD수첩 24:30 MBC 뉴스 24 24:15 MBC 100분 토론	18:00 생방송 투데이 19:20 돌아온 황금복 20:00 SBS 8 뉴스 20:55 SBS 뉴스토리 22:00 육룡이 나르샤 23:15 불타는 청춘 24:35 나이트라인	18:20 냉장고를 부탁해 (재) 19:55 JTBC 뉴스룸 21:30 내 나이가 어때서 22:50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24:15 마녀사냥 스페셜	18:10 MBN 뉴스와이드 19:40 MBN 뉴스 8 20:40 고수의 비법 황금알 (재) 21:50 휴먼다큐 사노라면 23:00 엄지의 제왕 24:40 엄지의 제왕 (재)	18:40 명단공개 (재) 19: 40 오마이갓 20:40 현장토크쇼 TAXI 21:40 집밥 백선생 23:00 삼시세끼 어촌편 시즌2 (재) 24:50 수컷의 방을 사수하라 (재)	18:00 Mystery Dinners (재) 19:00 집밥의 여왕 20:30 최현석의 크레이지타임 (재) 21:00 Roadtrip With G.Garvin 21:30 Andy Bates : American Street Feasts 22:00 Cutthroat Kitchen 23:00 필로교수의 쿠킹콘서트 한우예찬 (재)

'첫돌' 슈틸리케호, 자메이카전서 자축포 쏜다



한국축구 오늘 친선경기
1998년 후 17년 만에 격돌
구자철·석현준 등 출전준비

울리 슈틸리케(61·독일·사진)한국 축구대표팀 감독이 자메이카를 상대로 데뷔 1주년을 기념하는 승리를 노린다.

슈틸리케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오늘 오후 8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자메이카와 친선경기를 갖는다.

슈틸리케 감독은 지난해 10월10일 축구대표팀 감독으로 데뷔전을 치렀다. 당시 천안종합운동장에서 파라과이를 상대로 2-0 승리를 거두며 산뜻한 출발을 알렸다. 1년여가 흐른 지금, 신임 감독을 겨냥했던 의구심은 어느새 두터운 신뢰로 바뀌었다.

국내에서 치러지는 평가전에서 슈틸리케호가 화끈한 승리로 1년을 자축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팀 분위기가 좋다. 슈틸리케호는 지난달 3일 열린 라오스와의 2018 러시아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 경기부터 3연승을 달리고 있다. 라오스를 상대로는 무려 8골을 몰아쳤고, 레바논 원정에서는 22년 만에 승전보를 전했다. 지난 9일에는 적지에서 쿠웨이트를 격파함으로써 러시아월드컵 2차예선 G조 1위 자리를 굳건히 해 최종예선 직행의 가능성을 높였다.

슈틸리케 감독의 데뷔 1주년 상대인 자메이카는 대표팀의 상승세를 이어갈 적절한 상대로 평가된다. 하지만 방심은 금물이다. 이전 상대들과 달리 자메이카는 10월 기준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57위에 올라있어 한국(53위)과 큰 차이가 없다. 특히 지난 7월 열린 북중미선수권대회(골드컵) 준결승에서 미국을 격파하고 준우승을 차지하는 등 만만찮은 전력을 과시하고 있다. A매치에서 늘 의외의 결과를 만드는 복병으로 손꼽힌다.

한국은 지난 1998년 친선경기 이후 17년 만에 자메이카와 격돌한다. 역대 전적에서 1승1무로 한 발 앞서 있다.

이날 경기에는 지난 쿠웨이트전에서 결승골을 터뜨렸던 구자철(26·아우크스부르크)이 공격진을 이끌 것으로 보인다.

또 최근 3연승을 달리는 동안 허리진을 지켰던 기성용(26·스완지시티)–권창훈(21·수원)–정우영(26·빗셀 고베) 조합은 이번에도 출격할 가능성이 높다. 손흥민(23·토트넘)과 이청용(26·크리스털 팰리스)의 부상 공백이 아쉽지만 남태희(24·레퀴야), 이재성(23·전북 현대)의 좌우 날개 시험무대로 활용할 수 있어 낙관적이다.

최전방 공격수 자리에는 석현준(24·비토리아)이 슈틸리케 감독의 신임을 바탕으로 출전을 준비 중이다. 지동원(24·아우크스부르크)과 황의조(23·성남) 또한 원톱 자리를 노리고 있다.

/하희철 기자 hhc@metroseoul.co.kr

'피겨' 박소연, 핀란디아 트로피 최종 4위

실수, 가산점 구간서 만회
합계 159.93점 받아



박소연(18·신목고·사진)이 2015–2016 시즌 첫 대회 프리스케이팅에서 순위를 더욱 끌어올렸다.

박소연은 12일(한국시간) 핀란드 에스푸에서 열린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챌린저 시리즈 핀란디아 트로피 여자 싱글 프리스케이팅에서 기술점수(TES) 55.40점, 예술점수(PCS) 53.02점으로 합계 108.42점을 받았다.

프리스케이팅 3위에 오른 박소연은 전날 쇼트프로그램에서 받은 51.51점(6위)을 더해 총점 159.93점으로 최종 4위에 자리했다.

박소연은 새 음악인 '더 레드 바이올린'을 배경으로 붉은 드레스를 입고 나와 트리플 러츠 점프로 격정적이면서도 고혹적인 연기의 시작을 알렸다.

트리플 살코–더블 토루프 콤비네이션을 깔끔하게 처리한 박소연은 트리플 플립 단독 점프에서는 착지 도중 몸이 흔들려 회전수 부족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스텝 시퀀스를 레벨3으로 처리한 박소연은 가산점 구간에서 트리플 루프, 트리플 러츠–더블 토루프–더블 루프 콤비네이션, 더블 악셀을 모두 깔끔하게 뛰어 실수를 만회했다.

레이백 스핀에서 가장 높은 레벨4를 받아 기세를 이어간 박소연은 더블 악셀에서 또 가산점을 받았다.

플라잉 싯스핀에서는 쇼트프로그램에 서처럼 레벨1을 받아 아쉬움을 남기는 했지만 마지막 콤비네이션 스핀을 다시 레벨4로 처리하고 연기를 마쳤다.

/하희철 기자



폴란드의 레반도프스키가 12일(한국시간) 독일 레드불 아레나에서 열린 유로 2016 예선 D조 조별리그 10차전에서 조지아를 꺾은 뒤 본선 진출을 확정짓자 기념 셔츠를 보이며 기뻐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독일·폴란드, 유로2016 본선행

D조 1, 2위로 나란히 통과
알바니아도 사상 첫 진출

독일과 폴란드가 2016 유럽축구선수권대회(이하 유로2016) D조 1, 2위로 본선행을 확정지었다.

독일은 12일(한국시간) 독일 라이프치히 레드불 아레나에서 열린 유로 2016 예선 D조 조별리그 10차전에서 조지아를 2–1로 꺾었다. 독일은 후반 5분 토마스 뮐러의 페널티킥 골로 앞서갔지만 3분 뒤 동점골을 허용했다. 독일은 그러나 후반 34분 막스 크루제가 결승골을 터뜨리면서 승리를 거뒀다.

폴란드는 아일랜드와의 경기에서 1–1로 팽팽히 맞선 후반 42분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가 결승골을 터뜨리면서 승리와 함께 본선 진출 티켓을 거머쥐었다.

I조 알바니아는 아르메니아를 3–0으로 격파해 포르투갈에 이어 조 2위로 사상 첫 본선행을 확정지었다. 알바니아는 전반 9분 아르메니아의 자살골로 기선을 잡은 뒤 전반 24분과 후반 31분 추가골을 터뜨리면서 완벽한 승리를 거뒀다. 알바니아에 밀린 덴마크는 I조 3위에 그쳤다.

루마니아 역시 페로 제도를 3–0으로 물리치고 F조 2위로 예선을 통과했다. /하희철 기자



추신수, ALDS서 4타수 무안타 침묵

텍사스, 1–5 패… 2승 1패 기록

텍사스 레인저스의 추신수(33·사진)가 아메리칸리그 디비전시리즈(ALDS·5전3승제)에서 무안타에 그쳤다. 텍사스는 2연승 후 첫 패배를 당했다.

텍사스는 12일(한국시간)미국 텍사스 주 알링턴의 글로브 라이프 파크에서 벌어진 토론토 블루제이스와의 시리즈 3차전 홈경기에서 공수 모두 무기력한 모습 끝에 1–5로 패했다.

22년 만에 포스트시즌에 오른 리그 동부지구 우승팀 토론토는 선발 투수 마르코 에스트라다의 눈부신 역투와 이적생 트로이 툴로위츠키의 3점 홈런을 앞세워 승리를 거두고 벼랑에서 탈출했다.

텍사스의 2번 타자 우익수로 출전한 추신수는 4타수 무안타, 삼진 2개로 경기를 마감했다. 9일 2차전 첫 타석에서 적시타를 쳐 포스트시즌 개인 통산 두 번째 안타와 타점을 추가했으나 이번 시리즈 3경기에서 타율 0.077(13타수 1안타)로 부진에 빠졌다.

추신수는 1회 풀 카운트에서 에스트라다의 바깥쪽 높은 빠른 볼에 방망이를 냈지만, 3루수 파울 플라이로 잡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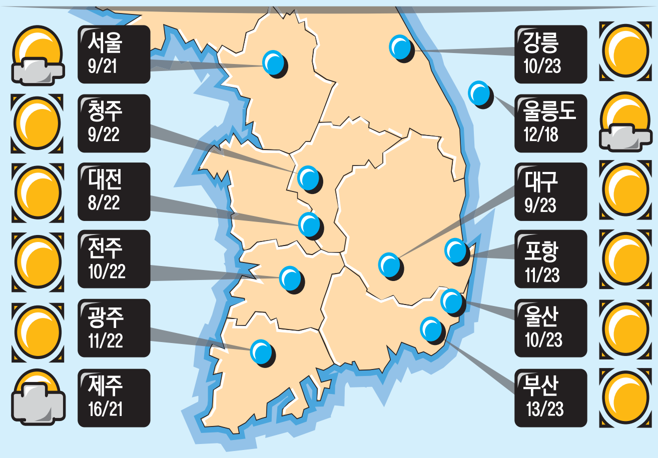
4회에도 풀 카운트 접전에서 바깥쪽 높은 공을 휘둘렀지만, 공을 헛쳤다. 6회에는 초구를 공략해 1루수 땅볼로 물러났다. 8회에는 물끄러미 서서 삼진을 당했다.

/하희철 기자

날씨

10/13 화 일출시각 06:38 일몰시각 17:59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630.co.kr



자외선지수 / 피부질환가능지수 / 감기가능지수 / 천식-폐질환가능지수

자료제공 :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www.paik.ac.kr)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1			3	
	1		8				4	2
			5	4	7	8	1	
				6		1		
2	6						7	3
		9		5				
	8	3	6	2	1			
1	4				5		6	
	5			9				

		8						
3		7		4		2		5
				7		1	9	
	5	6			7		8	9
			3		8			
8	2		9			6	4	
	8	4		3				
2		5		8		4		1
						8		

스도쿠 정답

8	9	4	2	1	6	7	3	5
7	1	5	8	3	9	6	4	2
3	2	6	5	4	7	8	1	9
5	3	8	7	6	2	1	9	4
2	6	1	9	8	4	5	7	3
4	7	9	1	5	3	2	8	6
9	8	3	6	2	1	4	5	7
1	4	2	3	7	5	9	6	8
6	5	7	4	9	8	3	2	1

5	1	8	2	9	6	7	3	4
3	9	7	8	4	1	2	6	5
6	4	2	5	7	3	1	9	8
1	5	6	4	2	7	3	8	9
4	7	9	3	6	8	5	1	2
8	2	3	9	1	5	6	4	7
7	8	4	1	3	2	9	5	6
2	3	5	6	8	9	4	7	1
9	6	1	7	5	4	8	2	3

문제 제공= 보누스

'멘사 스도쿠 프리미어'
(피터 고든·프랭크 롱고 지음)

생활 영어

It's good

A: How is the project going?

B: It's good.

A: It's a tough project, right?

B: It's not bad. It's easier than I thought.

A: That's awesome. Keep up the good work.

B: Sure. Leave it to me.

좋아요

A: 프로젝트는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B: 좋아요.

A: 힘든 프로젝트죠, 그렇죠?

B: 나쁘지 않아요. 생각했던 것보다 더 쉬워요.

A: 그거 참 잘됐네요. 계속 수고해요.

B: 그러죠. 저한테 맡기세요.

문법Point

'주어+be동사' 뒤에 오는 형용사는 주어의 상황, 상태, 기분을 나타낸다. 인칭대명사 it은 앞에 언급된 주어나 문장을 대신해 주어 역할을 한다. 같은 단어를 반복하기 꺼리는 영어의 특성 때문에 대명사 it이 일상 회화에서 주어로 자주 등장한다.

ex) It's nice. 좋네요. ex) It's nice. 우울해요.

인칭대명사 it은 비인칭 주어로도 사용되어 날씨, 시간, 계절, 거리, 명암 등을 나타낸다. 이때 it은 해석할 필요가 없다.

ex) It's cold. (날씨가) 춥네요. ex) It's very far. 무척 멀어요.

Words

tough 힘든, 고된 easier 더 쉬운

awesome 멋진, 훌륭한 keep up 계속하다, 유지하다

* Keep up the good work : 계속 수고해요
– 계속 열심히 일해 달라는 격려의 표현.
* Leave it to me : 저한테 맡기세요
– 동사 leave에는 '(책임을) 맡기다'라는 의미가 있다. Leave it with me. 라고도 한다.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원만한 대인관계를 위한 지침이 궁금합니다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친절을 베푸세요

댕댕 72년 7월 23일 음력 13시 10분

Q 사람들의 다양한 고민을 명쾌하게 해결해 주시는 선생님의 칼럼을 즐겨보고 다양한 인생을 대리 경험하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주변 사람과 친하게 지내고 싶으나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인지 대화가 원활하게 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해 나가려면 어떤 부분을 개선하여야 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제가 인생을 위해 꼭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이고 좌우명을 삼을 가르침을 알려주십시오. 항상 좋은 말씀 감사드리며 따끔한 가르침 주시면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A 분목(焚木)의 형상 즉 한낮에 태양이요 상관사궁(傷官死宮)으로 외견이 고고(孤高)하고 자신은 안 그렇다고 하지만 자신은 잘 난 사람인데 남이 알아주지 않고 도화(桃花)로 객지 생활이 분주다망하며 다정이 병이 되어 내 것 주고도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대화가 서투른 첫 번째 이유는 대화법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사람을 자주 만나 이야기를 하기 위해 낯선 상대와 수백 번이라도 연습해야 합니다. 시간이나 가는 길, 버스 노선 등을 알면서도 물어보기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원인은 실제로 재미가 없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거리도 많이 찾아보는 거죠. 내 입에 붙을 때까지 연습하는 겁니다. 친한 친구에게도 시도해보고 가족에게도 시도해보기도 하고 혼자 해보기도 하면서 연습하고 또 연습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가능한 말을 잘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에, 따뜻한 마음이 있으면서도 세상 돌아가는 것을 잘 알고 있는 혜안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어려운 얘기이거나 누구나 알고 있는 쉬운 얘기일수 있겠으나 대화의 방법뿐 아니라 아무리 운이 미약하고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더라도 하심 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다면 전화위복의 기회가 옵니다. 때로 반대편의 의견도 포용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 타인에게 친절하고 깊은 동정심이 있어야합니다.

근본적으로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자신을 가꿔나가시길 바랍니다. "거울은 먼저 웃지 않는다. '내가 웃으면 거울이 웃는다. 와 '수적천석(水滴穿石)' 작은 물방울이지만 끊임없이 계속 떨어지면 결국은 돌에 구멍을 낼 수 있다. 작은 노력인 것 같지만 계속 하면 나중엔 큰일을 낼 수 있다는 좌우명입니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 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10월 13일 (음 9월 1일) 힐링운세(www.healingunse.com) 060-800-8877

쥐 **48년생** 혼자의 힘으로 목표 달성은 어렵겠습니다. **60년생** 날로 번창하니 재물과 명예가 늘어납니다. **72년생** 시간활용을 잘 할 때입니다. **84년생** 가는 곳마다 이로운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 **49년생** 귀중한 물건을 분실할 실물수가 있습니다. **61년생** 현 상태에 만족하고 더욱 노력하세요. **73년생** 좋은 사람이 나를 도우니 크게 형통할 운입니다. **85년생** 선후배의 도움을 구하세요.

호랑이 **50년생** 도처에 재물이 있으니 나가면 얻을 것입니다. **62년생** 어려움을 능히 이겨 나갈 것입니다. **74년생** 서두르지 말고 일에 진척을 살피며 천천히 진행하세요. **86년생** 동쪽 물가로 가지 마세요.

토끼 **51년생** 눈 앞에 큰 이익이 있으나 여유가 없어 발견하지 못합니다. **63년생** 노력한 만큼 운이 따르지 않습니다. **75년생** 매사에 신중하세요. **87년생** 서남 쪽이 길방입니다.

용 **52년생** 순조롭게 이뤄지지 않습니다. **64년생** 늦게 이루어지니 조급해 하지 마세요. **76년생** 현실에서 과감히 벗어나세요. **88년생** 고집을 버리세요.

뱀 **53년생**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하는 법입니다. **65년생** 작은 일에 만족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77년생** 거래를 이루려면 상대를 알아야 하는 법입니다. **89년생** 일을 크게 벌이지 마세요.

말 **54년생** 심신이 피곤한 하루입니다. **66년생** 새로운 계획이 필요할 때 입니다. **78년생** 동남 쪽이 길방입니다. **90년생** 하늘이 열리고 빛이 내려와 나를 비추니 부귀영화가 내 것입니다.

양 **55년생** 노력하고 기다려 보세요. **67년생**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집니다. **79년생** 뜻밖의 제안을 받게 됩니다. **91년생** 매사에 조심 또 조심하세요.

원숭이 **56년생** 시기가 좋습니다. **68년생** 발전 일로에 있으니 걱정마세요. **80년생** 불리하게 전개되니 상대방과 타협하세요. **92년생** 여러 사람의 도움으로 모든 일이 잘 풀려 나가니 크게 성공합니다.

닭 **57년생** 여행은 휴식입니다. **69년생** 과음과식을 조심하세요. **81년생** 대체로 길하나 여성의 경우 천천히 이루어 지겠습니다. **93년생** 윗 사람을 공경하세요.

개 **58년생** 너무 신경쓰지 않아도 바라는 대로 이뤄집니다. **70년생** 장애물이 없으니 탄탄대로 입니다. **82년생** 좋은 결과 있겠습니다. **94년생** 매사불안하나 끝내 이뤄집니다.

돼지 **59년생** 어렵게 성사될 일도 아닙니다. **71년생** 백만대군이 당신을 지원하니 만사형통입니다. **83년생** 좋은 기회는 여러번 오지 않습니다. **95년생** 억지로 이뤄지지 않습니다.

여성직장인 퍼스널브랜드 만들기



조연심 지식소통가
㈜엠유 대표

시대가 변할 때마다 분명 그에 맞는 인재상이 달라져왔다. 그 말은 각 시대에 맞는 인재가 성공하거나 행복할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다.

18세기 농경사회에서는 도구를 사용해 많은 수확물을 거둬들일 수 있으면 족했다. 19세기 한 회사에 들어가 시키는 일을 하며 정년까지 버티면 인재였다.

20세기 정보사회에서는 내가 가진 정보가 나를 증명했다. 하지만 이들 자격증의 유효기간은 길어야 30년이다. 평균수명이 100세를 뛰어넘는 시대에 자격증만으로는 평생을 버틸 수가 없게 됐다. 더욱이 암기와 시험으로 취득한 정보는 클릭 몇 번이면 너무 쉽게 검색돼 무작정 암기하는 식의 공부는 효과가 없어졌다. 정보 독점이 어려워진 시대가 된 것이다.

21세기 지식창조시대가 열렸다. 나 아니면 안 될 핵심역량이 무어냐고 묻고 나의 꿈과 재능, 역량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하고 답하는 시대가 됐다.

답을 찾는 사이 세상은 또다시 변했다. 인터넷을 통해 모든 사물과 사물, 사물과 사람,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는 초연결사회(Hyper-Connection)가 된 것이다.

디지털 평판만으로도 새로운 기회가 오기도 하고 이유도 모른 채 기회가 차단되기도 하는 시대가 바로 초연결사회다.

초연결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좋아하는 일로 먹고 살 수 있는 걸까?

요즘 신의 직장이라 불리는 '구글'을 떠나 요리를 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안주원씨가 화제다.

'구글보다 요리였어'라는 책에서 본 그녀는 전공과목 대신 자신이 좋아하는 요리를 하며 끊임없이 '딴짓'을 했다. 그런 딴짓을 블로그에 기록해 사람들의 입을 통해 오르내릴 수 있게 되자 구글을 그만두고 이태원 경리단길 어느 막걸리집의 요리사로 자리를 옮겼다.

자신이 만든 요리로 친구들과 만날 수 있어 행복하다는 그녀의 필살기는 좋아하는 것을 직접 해보는 '딴짓'에서 시작되었다.

대한민국 최초 스트리트 패션 포토그래퍼 남현범씨가 운영하는 블로그(Streetfsn.com) '패션피플'에는 하루 2만~3만명이 다녀간다. 사진집도 출간됐으며 TV에서도 그를 만날 수 있게 됐다.

그가 직접 찍은 거리패션 사진은 단순한 취미를 넘어 패션계의 전설이라 불리는 사람에게까지 유명하다. 사진이나 패션을 전공한 적 없는 그의 사진이 블로그를 통해 전세계 사람들과 연결된 것이다. 인터넷을 통해 하나로 연결된 초연결사회가 가져다 준 기회다.

한국직업방송 여성재취업프로젝트 슈퍼맘리턴즈에서 '조연심의 퍼스널브랜드' 코너를 맡은 나 또한 첫 무대는 초라한 강의장이었다.

처음 만난 사람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Q&A'식 토크쇼로 진행했고 그 과정을 사진과 글로 블로그에 기록했다. 이 것을 시작으로 채선당 '미쓰변신 프로젝트', 인터넷 생방송 '북TV 365'등의 진행자를 맡게 됐다. 400여 명 앞에서, 다양한 연예인, 작가, 사회 유명인사 등과 함께 토크쇼도 진행했다.

5년의 현장 경험을 거친 나는 이제 어떤 순간이나 자리에서도 토크쇼를 진행하는 데 무리가 없을 만큼 충분히 훈련이 됐었다.

이 모든 과정의 시작은 블로그와 페이스북이다.

어떻게 하면 초연결사회에서 좋아하는 일로 먹고 살 수 있는지 알겠는가?

가슴 뛰며 좋아하는 바로 그 일을 하라. 그리고 그 일을 블로그에 기록하라. 비록 그 일이 처음에는 '딴 짓'이거나 '뻘짓'일지 모른다. 하지만 수많은 딴짓과 뻘짓이 켜켜이 쌓여 생각지 못한 기회와 연결되는 것이다.

'루나' 돌풍의 주역은…



기자 수첩
정 문 경
<산업부 기자>

중소기업과 SK텔레콤, 폭스콘이 합작해 만든 '루나'의 인기돌풍으로 업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12일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스마트폰 루나의 개발 과정과 뒷이야기를 공개하는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이홍선 TG앤컴퍼니 대표이사의 얼굴엔 자신감이 묻어났다. 뜨거운 기자들의 반응에 해외진출과 판매목표 등 연신 자심감을 가감없이 표현했다. 중소기업 대표에게서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모습이다.

삼성전자와 LG전자, 애플이 국내 스마트폰 시장을 휘어잡고 있는 상황에서 루나의 등장은 의미가 크다.

루나는 기획과 디자인은 PC제조사인 TG앤컴퍼니가, 생산은 애플의 위탁생산업체로 유명한 폭스콘이, 감수와 판매는 SK텔레콤이 각각 맡아 탄생한 40만원대 중저가 스마트폰이다. 하루 평균 2000여대가 팔리면서 인기몰이를 하고있다.

돌풍의 핵심은 '가성비'(가격대비 성능)로 꼽힌다. 루나의 돌풍은 철옹성만 같았던 대기업 제조사인 삼성전자와 LG전자를 넘어설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좋은 사례다. 브랜드 인지도가 강한 대형 제조사 중심으로 이동통신 유통망이 돌아가던 현재의 구조에 거품을 뺀 가격파괴와 디자인 변화를 줄 가능성이 열렸기 때문이다.

브랜드의 인지도를 넘어 소비자들의 입맛을 맞추면서도 가성비 좋은 제품이 SKT와 KT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출시될 수 있다면 앞으로 통신사가 유통구조의 흐름에서 충분히 키를 쥘 수도 있어 보인다. 소비자들에겐 반가운 소식이다. 거품을 쏙 뺀 남성정장 광고가 떠오른다. 소비자의 니즈를 제대로 파악해서 성공한 사례다.

또 국내외 단말기 시장은 중저가·실속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루나 같은 폰이 국내를 테스트 마켓으로 글로벌시장에 진출해 대박을 터트리는 변화를 기대해 본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루나와 같이 이동통신 시장의 틈새를 공략할 아이디어를 가진 플레이어들과 그들의 제품이 성공한다면 통신사와 제조사, 소비자 모두가 즐거운 변화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社說

국사교과서 폭넓은 대화 필요하다

논란이 많았던 국사 교과서 문제가 국정화하는 쪽으로 결론 났다. 정부가 12일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기로 공식 발표했으니 일단락된 셈이다.

그러나 역사학계와 교육계 일부에서는 국정 교과서가 민주주의에 역행한다며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야당도 국정화 저지 총력전에 나서기로 했다. 행정부고시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도 낼 방침이라고 한다.

반대론이 다소 있다고 해서 정부정책이 오락가락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만 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는 다른 문제와 달라서 좀더 매끄럽게 진행되어야 한다. 정부가 굳이 국정화를 단행하려면 왜 그런지 충분히 설명해야 하고, 나아가서는 반대론을 설득해야 한다. 설득이란 쉬운 것은 아니다. 설득을 위해서는 반대론자를 납득시킬 수 있는 방안까지 제시돼야 한다. 이를테면 국정화가 되더라도 결코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집필하겠다는 다짐 같은 것이 있어야 된다.

교과서 문제가 이념논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과거의 어떤 인물이나 사건에 대해 지나친 미화나 지나친 폄하도 곤란하다. 그러려면 역사학계의 폭넓은 이론과 관점이 반영돼야 한다. 국정교과서라고 해서 정권의 입맛에 따라 내용이 달라져도 안된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폭넓고 허심탄회한 대화가 필요하다. 정부와 야당과 역사학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행정예고 기간이 아직 20일가량 남아 있으니 이 기간에 서로 적극적인 대화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치아 착색 1위, 콜라보다 '홍차'

소비자 119



우리 국민이 선호하는 음식 가운데 치아에 착색을 유발하는 음식 1위가 홍차(black tea)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이 경희대 대학원 치의학과 박용덕 교수팀이 20~30대 직장인 300명을 대상으로 '선호 음식 중 치아 착색과 관련될 것으로 여겨지는 식품'을 설문조사한 뒤 이중 19종(種)의 식품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

연구진은 자연 치아와 구성 성분·질감·경도(硬度)가 비슷한 디스크(disc)에 19종의 치아 착색 유발 의심 식품을 각각 떨어뜨린 뒤 시간대 별로 치아(디스크)의 변색 정도를 측정했다. 이후 현재 치과에서 흔히 사용되는 치아 색깔 판정표를 이용해 치아의 변색 정도에 따라 1~16점(점수가 클수록 변색이 심한 상태)의 점수를 매겼다.

평가 결과 19종의 식품 중에서 치아 착색 점수가 가장 높은 것은 홍차(12.7점)였다. 초콜릿·아메리카노와 초콜릿·김치찌개·라면의 치아 착색 점수도 10점을 넘겼다.

커피의 경우 아메리카노는 8.4점, 카페라테는 4.1점의 치아 착색 점수를 기록했다.

예상 외로 콜라는 착색을 거의 일으키지 않았다. 콜라의 치아 착색 점수는 2점으로, 오렌지주스(2점)·고추장(2.3점)·커리(2.3점)·토마토소스(2.6점)·짜장(2.9점)·레드와인(3점) 등과 함께 치아에 착색을 거의 일으키지 않는 식품으로 평가됐다. /정은미 기자 21cindiun@

인사

◇한국마이크로소프트 ▷기업고객사업부 부사장 손일권
◇IBK투자증권 △신규 선임 ▷영업추진담당 강효경 ▷구조화금융팀장 윤성택 △보임 ▷IB금융팀장 김현섭
◇짐코 ▷총괄부회장 김철민
◇통계청 △고위공무원 승진 ▷통계서비스정책 은순현
◇KBS아트비전 ▷아트비전 경영기획부장 박성철
◇데일리스포츠한국 ▷선임기자 나영조(국장급) ▷체육부장 최만수 ▷실장 우승필 ▷과장 장인영

부고

▲ 이정승씨 별세, 이동원(한화건설 감사팀장)씨 부친상 = 12일 오전 00시 55분,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1호실, 발인 14일 (02-3010-2000)
▲ 김오성씨 별세, 최종석(전 한국투자공사 사장)씨 부인상, 경침·은침씨 모친상 = 12일 오전 7시 5분, 서울 강남성모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15일 오전(02-2258-5940)
▲ 박순교씨 별세, 박재본(부산시의원)씨 장모상 = 11일 오후, 부산 시민장례식장 MVG특실, 발인 14일 오전 8시(051-636-4444)
▲ 조동원씨 별세, 김길환(전 국회의원)·승환(호주 거주)·인환(서룡기업 대표)·종환·명환(전 로이터통신 기자)씨 모친상 = 12일, 서울 여의도성모병원 6호실, 발인 14일 오전 8시(010-9010-5812)
▲ 고복숙씨 별세, 이기태(전 삼성전자 부회장)씨 부인상, 이종원·종현·해진씨 모친상 = 11일 오후 7시 30분,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발인 14일 오전 7시
▲ 윤옥숙씨 별세, 정연욱(동아일보 정치부장)씨 모친상, 박미경(유니코써어치 상무)씨 모상 = 11일, 신촌세브란스병원, 발인 14일 오전 7시(02-2227-7500)
▲ 문능자씨 별세, 황윤상·윤경(NICE평가정보 상무)·윤진 씨 모친상, 이재연 씨 시모상 = 11일 오전 9시, 부산 좋은강안병원 장례식장 3호실, 발인 13일 오전 7시30분(051-610-9673)
▲ 김창모(전 인천일보 상무)씨 별세, 김형건(모바일어플라이언스 영업부 차장)씨 부친상 = 11일 오전 7시, 인하대병원장례식장 2호실, 발인 13일 오전 7시(032-890-3192)


HAPPY WATER
100% 천연암반수로 만든
부드러운 소주
가을을 물들이는
부드러운 한 잔
부드러운 소주의 처음, 처음처럼
경고 :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운전이나 작업중 사고 발생률을 높입니다
처음처럼
부드러운 17.5도